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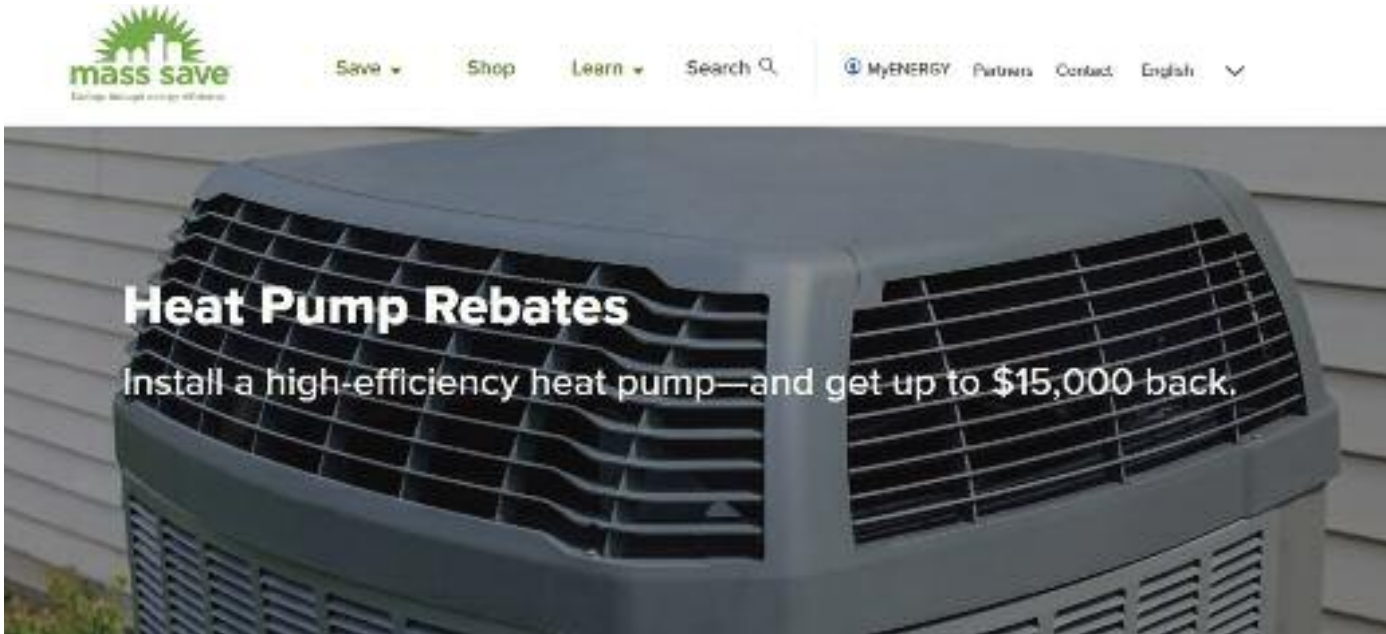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주공공유틸리티사업부(DPU)는 3년에 걸친 신규 매스세이프플랜을 발표했다. 지역 히트펌프를 설치할 경우 최대 \$15,000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많은 혜택이 들어있다.(사진=매스세이프 화면 갈무리)

## 중앙냉난방 시스템 무료 설치 프로그램 이용하세요

주정부 새로운 매스세이프 플랜 승인으로 혜택 대폭 확대  
매스 히트펌프 리베이트 최대 \$15,000, 중저소득층 100% 지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중앙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하고 싶었지만 비용 때문에 망설였다면 올해는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거나 일부 비용부담만으로 설치가 가능해졌다. (관련기사: 내가받을 수 있는 혜택은? 4면)

매사추세츠 유틸리티사업부(DPU)가 전기 히트펌프(heat pump, 냉난방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가정에 주는 리베이트를 광범위

하게 확장하는 계획을 허용함에 따라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매사추세츠 공공유틸리티사업부(DPU)는 1월 31일 온실가스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효율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커다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3개년 계획을 승인했다.

과거와 달리 새로운 매 ▶▶5면으로 계속

## BBB 법안 재논의...법안은 축소, 통과가능성 높아져

민주당 의원들 맨신 주장대로 법안 재구성 점차 받아들여 기후변화, 프리킨더 보편화, 의료보험 보조 등으로 축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바이든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BBB법안의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이번에는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여서 전망은 훨씬 밝아졌다.

2월 워싱턴에 복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역사상 민주당의 숙원사업이었으며 바이든 대통령 정책이 담겨 있는 나은미국재건(Build Back Better)법안을 조 맨신 상원의원(민주, 웨스트버지니아)의 의견대로 처리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월 30일 일요일 민주당 의원들이 결국 BBB법안의 사장을 우려해 점차 지금까지 민주당 원안대로 추진하려했던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버몬트 주에서 상원 출마 ▶▶7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HAPPY NEW YEAR .....

# 근하신년

2022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스톤 코리아는 새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더욱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 더욱 쉽고 편하게 보스톤코리아를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 더욱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하겠습니다.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Korea licensed  
Multi -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bostonpremierrealty.com

# 재외국민 소중한 한표, 꼭 행사하세요

## 보스턴 재외선거관리 위원회 한인사회 각처에 편지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주보스턴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남궁연)는 1월 28일 이메일 서신을 통해 “재외국민 유권자의 소중한 한표를 부탁드립니다”며 꼭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20대 대선 재외국민투표는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보스턴 총영사관에서 진행된다.

남궁연 위원장은 서신을 통해 “주 보스턴총영사관이 관할하는 뉴잉글랜드지역은 재외국민 참정권이 도입된 2012년 19대 총선을 시작으로 두번의 대선과 총선으로 이어지는 동안 미주내 가장 높은 등록 신청률과 투표율로 높은 정치 참여 의식과 나라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었다”고 보스턴 지역의 높은 정치의식을 상기시켰다.

이번 20대 대선 보스턴 등록 현황은 1993명으로 추정 유권자 대비 등록율은 8.7%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워싱턴 D.C.(12.8%)에 이은 미국내 2위를 기록했다. 보스턴은 팬데믹 이후 많은 유학생이 감소해 등록율 감소가 예상됐었다.

한 선관위 관계자는 워싱턴 DC의 경우 학생들의 비율보다 현지 파견 주재원 국외부재자들이 많은 관계로 비교적 높은 등록율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했다.

남궁 위원장은 “이제는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에 직접 한표를 행사하는 투표만이 남았다.”며 “재외 선거인 등록 및 국외부재자 신고를 마치신 1,993명의 모든 유권자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100%의 투표율로 뉴잉글랜드 재외국민의 높은 정치참여 의식과 나라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투표참여를 당부했다.

뉴잉글랜드 지역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82%의 투표율을 보여 미국 내 선두를 달렸었다.

투표를 위해 방문하는 한인 유권자들은 한국 여권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영주권자들은 신분증과 영주권을 동시에 지참해야 한다. 주처는 영사관 옆 웨라톤 호텔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으며 영사관은 주차증을 발급한다.

투표일시 : 2022년 2월 23일 (수요일)



일) 부터 2월 28일 (월요일) 까지 총 6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장소 : 주보스턴 총영사관 재외투표소 (300 Washington St. #251, Newton, MA 02458)

주차제공 (영사관 옆 Four Points 웨라톤 호텔 주차장 이용)

학생 및 단기체류자 등 국외부재자에 해당되는 유권자들은 한국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지참.

영주권자는 사진이 첨부된 상기 신분증에 영주권을 함께 지참.



미주 지역회의의 간부 공공외교 워크샵에 참석자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맨앞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가 브래드 셔먼 의원, 오른쪽 끝이 한선우 보스턴 평통 회장

## 민주평통 미주지역 운영회의 및 워크샵 개최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김현주 평통 부회장, 편집부 =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의 미주지역 운영회의 및 워크샵이 오렌지 샌디에고에 너하임에 있는 매리엇 호텔에서 지난 1월 28-30일에 개최되었다.

미주 지역 20개 협의회 회장과 최광철 미주부위원장, 김창수 사무처장, 미주지역 간부위원 60여명이 참가하였고 한선우 회장은 지난 행사와 상반기 사업에 대해 발표하고 공공외교로서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준비상황을 설명했다.

김창수 사무처장은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 공공외교>, 최

광철 미주 부의장은 <디아스포라 공공외교>에 대해 강연하였고 한반도 평화법안(H.R.3446)을 발의한 브래드셔먼 연방하원의원은 <한반도 평화법안>에 대한 기초연설을 하였다.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도 동영상을 통해 평화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회의후에 한반도 평화와 종전을 위한 평화법안 지지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실행하는 방법을 논의하였다. 마지막 일정으로 오렌지 샌디에고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비를 방문

해 현화하였다.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설렁탕 겨울특선메뉴

#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턴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 SAT 성적 미네소타주 최고, 매사추세츠는 15위에 불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국내에서 SAT 평균점수가 높은 주는 대부분 중북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미네소타주가 미국 평균보다 203점이 높은 1263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스칼라십 인스티튜트와 러너가 공동으로 칼리지 보드의 SAT 점수 평균을 조사한 결과 미네소타가 1위를 노스다코다가 1258점으로 2위, 네브라스카가 1246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매사추세츠는 15위에 머물렀다.

대입입시에서 점차 ACT에 밀리고 일부 대학은 SAT를 입시에서 고려하지 않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SAT는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최고 점수는 1600

점, 최저 점수는 400 전국 평균은 1060이다.

1위부터 10위까지의 미 대륙 중북부의 주는 유명한 대도시가 없으며 백인의 인구 비중이 대부분 80%가 넘는 곳이었다.

가장 점수가 낮은 곳은 델라웨어로 평균점수가 984점이었으며, 아이다호 985점, 워싱턴 DC가 987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은 주였다. 플로리다, 뉴멕시코, 텍사스, 웨스트 버지니아, 일리노이, 로드아일랜드, 미시간 등이 뒤를 이었다. 점수가 낮은 곳의 경우 대부분 백인보다는 남미계 또는 흑인들의 비율이 높았다.

bostonkorean@hotmail.com

최상위권		
1 Minnesota	1263	203
2 North Dakota	1258	198
3 Nebraska	1246	186
4 Iowa	1243	183
4 Kansas	1243	183
5 Utah	1238	178
6 Wyoming	1233	173
7 Montana	1225	165
8 Tennessee	1220	160
9 Kentucky	1219	159
9 Missouri	1219	159
최하위권		
43. Delaware : 984		
42. Idaho : 985		
41. District of Columbia : 987		
40. Florida : 993		
39. New Mexico : 996		
38. Texas : 1003		
37. West Virginia : 1007		
36. Illinois : 1007		
35. Rhode Island : 1011		
34. Michigan : 1031		



## 던킨 도넛 2월달 수요일에 무료 커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던킨은 매사추세츠 전역에서 올해 2월 한달동안 매주 수요일 무료 커피를 제공한다.

던킨의 DD Perks 회원들은 수요일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던킨점에서 미디어사이즈 핫 또는 아이스커피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무료 커피를 받기 위해서는 DD Perks 앱을 통해 커피를 주문하거나 계산대에서 로열티 카드를 스캔해야 한다.

또한 2월 9일과 16일 일부 회원들에게는 \$5짜리 기프트카드를 선사하며 1등상 당첨자에게는 보스톤 브루윈스 경기 티켓을 선사하기도 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문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상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인 회원사

#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산 자가진단 코로나 테스트 키트 판매 합니다. 개당 \$50”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 새로운 매스세이브 플랜 나는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명술 기자 = 매사추세츠주는 새로운 매스세이브(Mass Save)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매스세이브 플랜은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통해 유틸리티 비용을 낮추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프로그램이다.

34페이지에 달하는 신규 3년 플랜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40억달러를 투입해, 전면 리베이트, 무이자 대출, 무료 효율업그레이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따라서 한인들의 경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누가 신청이 가능한가?

매사추세츠 주민으로 버크셔 가스, 케이프라이트 컴팩트, 에버소스, 리버티 유틸리티, 내셔널 그리드, 유니틸을 이용하는 고객들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총 리베이트 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매사추세츠 주 중위소득의 60%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 100% 냉난방 설치 및 각종 가전기기 설치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저소득 전기요금, 푸드 스탬프 등의 혜택을 받고 있으면 이 범위에 들어간다.

주 중위소득의 60%-80%에 속하는 경우

주정부의 Enhanced Residential Program의 혜택이 가능하며, 80% 이상의 소득자들도 일부 세이빙 플랜의 혜택이 가능하다.

<https://www.masssave.com/en/saving/income-based-offers/income-eligible-programs>

세입자들의 경우도 매스세이브의 혜택이 가능하며 새로운 프로그램에 따른 구체적인 혜택은 약 5월 정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 매스세이브가 가능한 업그레이드는 어떤 것인가?

신규 매스세이브 프로그램은 40억달러를 배정했다. 이중에 상당 금액을 단열 및 방한 프로젝트에 배정했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 중저소득은 100%를 리베이트하며 일반 주민의 경우 최소 75%의 비용을 커버한다.

이 플랜은 중앙냉난방, 단열, 전기 히팅 및 워터히팅 장비, 에너지 효율 전자기기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다. 또한 전기 히트펌프의 경우 개스히팅 고객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중저소득층의 고객의 경우 히트펌프 시스템의 구입과 설치 전 비용을 주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중저소득이상의 소득인 경우 선택하는 히



트펌프에 따라 각기 다른 지원이 제공된다. 현재의 천연가스 히팅시스템을 완전히 중단하고 히트펌프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10,000까지 리베이트가 제공된다. 만약 현재의 가스 히팅을 백업으로 유지하는 경우 최대 리베이트는 \$4,000까지만 제공된다.

히트펌프를 설치하기 전 단열보온을 위한 웨더라이징(weatherizing)을 선택하는 경우 추가 절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주공공유틸리티사업부(DPU)는 자세한 인센티브 계획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으나 오는 5월까지 자세한 인센티브를 발표할 계획이다.

### 어떻게 신청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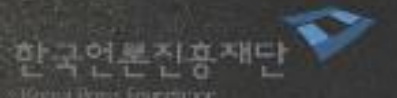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1-866-527-SAVE(7283)으로 전화해 무료 가정에너지 평가(Home Energy Assessment)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Home Work Energy같은 사업자들을 통해서도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다.

Mass Save에 따르면 좀더 자세한 플랜은 매스 세이브 웹사이트에 추후에 업데이트 된다. 또한 전기 잔디 장비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곧 공개 된다.

editor@bostonkorea.com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오후 5:30  
곧 도착! 주차하고 갈게!!!



오빠 어디야? 난 다 왔어~  
오후 5:28

## 서로의 위치는 확인했지만 눈앞의 위험은 확인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보행 중 교통사고 60% 이상이 스마트폰 사용 중 발생합니다.



## 중앙냉난방 시스템 무료 설치 프로그램 이용하세요

▶▶1면에 이어서

스세이브플랜(Mass Save plan)은 오일이나 개스 난방을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전기 난방 또는 신재생에너지 난방으로 전환하도록 권장해 지구 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총 40억달러에 달하는 이번 인센티브 중 수백만달러가 전기 히트펌프(Heat Pump)를 지원하는데 배정됐으며, 올해들어 새롭게 천연가스 난방 사용 주민들도 이를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주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1백만 가구를 전기 냉난방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동력이 필요한 상태다. 지금까지 히트펌프 인센티브는 아주 빈약해 주민들이 신청을 꺼리는 관계로 2020년 461개 가구만 이를 신청해 전

환했다.

노스이스트 클린에너지 카운슬의 제레미 맥다리아미드씨는 “이번 계획은 미래를 계획하는 야심적인 계획” 이라고 말하며 과거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LED전구를 갈아끼던 차원이 아닌 주택주들을 아주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기후변화 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 0(Zero) 온실가스 배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새로운 매스세이브 플랜에 따르면 이번 계획으로 2030년까지 약 848,713메트릭 톤의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배출을 감축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editor@bostonkorea.com

## 어르신들께 '설날' 떡국과 식품 바스켓을 나누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신영 한인회 부회장 = 설 명절인 오늘 (2/1/2022) Brighton 소재 2Life Communities에 거주하시는 한국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왔다. 이번 행사는 매사추세츠한인회(서영애 회장)와 보스톤 한미예술협회(김병국 회장) 그리고 주 보스톤 총영사관 박육현 영사, 매사추세츠한인회 신영 부회장과 진명희 부회장이 함께 참여하였다. 그리고 2Life Communities에서 일하시는 수퍼바이저 Gaye Freed와 인턴 강완수 학생과 박민주 학생이 함께 참여를 하였다.

오늘이 설 명절이라 떡국을 끓여 나누면 더욱 좋았을 테지만, 요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으로 조심하고 있는 때라, 떡국떡과 쌀 그리고 식품 바스켓을 만들어 나누어 드렸다. 음식을 도네이션 해주신 곳은 매사추세츠한인회,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서울설령탕(사골육수), H 마트(떡국떡) 바스켓에는 그 외 쌀, 김치, 된장, 고추장, 라면, 유과, 마스크 등이 마련됐다.

이곳에는 약 600여 명의 노인들



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중의 한국 노인들은 12명밖에 되지 않았다.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며, 그 진행을 맡은 인턴 두 학생이 있었다. 표현예술 인턴 중인 강완수 학생과 박민주 학생이 한인 어르신들을 위해 매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9am - 5pm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한다. 오늘 모임에는 6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였다.

어르신들과 함께 습자지를 이용해 꽃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하면서 서로 교감하며 소통하고 있다고 한다. 한 어르신이 말씀해 주신다. 처음에는 노인이 뭘 애들처럼 이런 것을 하나씩 맡음을 했었는데, 요즘은 어쩌나 재밌는지 다른

노인들의 완성된 작품을 보며 감동을 한다고 말씀해 주신다. 두 인턴 학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참석한 어르신들의 매사추세츠한인회와 보스톤 총영사관 그리고 보스톤 한미예술협회에 바라는 의견과 도움이 필요한 의견들을 모아 이야기를 서로 나눴다. 서영애 회장과 박육현 영사 그리고 김병국 회장의 답화가 이루어졌다. 오늘 일정을 맡고 안내한 인턴 강완수 학생과 박민주 학생의 섬세하고 꼼꼼한 준비와 함께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환영의 문구까지 만들어 모두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었다.


bostonkorean@hotmail.com



# 피터 김 부동산

## 주택, 콘도 및 상업 건물 전문

MA 전지역 (32개 지점 MA 전지역에 위치)



**Peter Kim REALTOR®**  
**508.904.4735**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Commonwealth Real Estate

Direct line: 508.530.0125  
Mobile: 508.904.4735 (Text for Urgent Matters)  
www.PeterKimRealtor.com





THE WORLD'S No.1 GINSENG BRAND CheongKwanJang

정관장

# 어흥! 호랑이 면역력

2022 설에 챙기세요 정관장 면역력!



행사기간: ~2월 6일까지

## 정관장 면역력 설날대잔치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3개 구입시 120g 증정



**\$250 이상 구입시**  
홍삼원골드 1박스 증정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FedEx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 올해 이자율 인상과 관련 알아두어야 할 것들

## 인플레 맞서 연준 올해 최소 3차례 금리인상 계획 은행들 오른 이자율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연준이 3월 이자율을 올리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자율의 인상은 거의 기정 사실화 됐다. 현재 주택 구매를 계획하고 있거나, 변동금리 모기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많은 크레딧 카드 빚을 보유하고 있다면 최근의 이자율 인상이 영향을 주게 된다.

현재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기준 금리를 3월 0.25% 올릴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두번을 더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연준의 허리띠 졸라매기는 40년만의 처음 찾아오는 7%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고육책이다.

연준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은행, 크레딧 유니온, 그리고 기타 대출기관들은 이자율 상승의 대부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게 된다.

보스톤글로브는 2월 2일자에서 이자율 상승과 관련 알아야 할 사항을 점검했다.

**Q. 기준금리의 인상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기지 금리에도 영향을 주나?**

A. 고정금리 모기지 또는 변동금리 모기지(ARM)이나에 따라서 받는 영향이 다르다. 고정금리인 경우 모기지 이자율은 변동이 없다. 변동금리를 선택했다면 이자율이 높아진다. 변동금리 모기지는 고정금리로 이를 전환할 수 있지만 일정 설정기

간이 만료되어야 가능하다. 가장 많은 변동금리 재설정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다. 5년 이후에는 매년 재설정이 가능하다.

**Q. 높은 모기지 금리는 주택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

A. 이자율이 올라가면 주택 구매는 훨씬 비싸진다. 주택 판매비용은 바뀌지 않는다 해도 매달 부담해야 하는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Q. 얼마나 더 들게 되나?**

A. 만약 연준이 0.75%를 올리게 되면 30년 고정금리의 30만불 모기지의 경우 한달에 \$130.00을 더 내게 된다. 이는 30년 동안 \$45,000의 비용을 더 부담하게 만든다.

**Q. 한달 예산에서 얼마 정도가 모기지 페이먼트로 적절하나?**

A. 일반적으로 모기지 페이먼트 금액(원금+이자+세금)은 한달 수익의 28% 이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130이 올라가면 28% 이하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다음은 소비자재정보호원의 가이드이다. <https://www.consumerfinance.gov/owning-a-home/explore-rates/> 그러나 모기지 대출을 위한 DTI의 경우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모기지 전문가와 이를 상의해보는 것이 좋다.

**Q. 모기지 채용자는 어떤가?**

A. 일반적으로 모기지 채용자는 낮은 이자율의 새로운 모기지로 기존의 모기지를 갚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월 페이먼트 금액이 낮아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내려갈 때 채용자가 많고 이자율이 올라갈 때는 줄어든다. 따라서 이자율이 더 올라가기 전에 꼭 채용자를 해야 하는 경우 모기지 대출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Q. 크레딧 카드는 어떤 영향을 받나?**

A. 크레딧카드 이자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 거의 대부분의 크레딧카드 발행 기관은 변동APR을 채택하고 있다. 월 크레딧카드 통지서를 보면 크레딧 카드사들은 "Prime + 마진" 을 부과한다. 프라임은 은행이 최고 고객들에게 부과하는 이자율을 의미한다. 마진은 각 소비자의 크레딧 점수를 바탕으로 카드사가 부과하는 추가 이자를 의미한다.

**Q. 크레딧 카드 이자를 더 많이 내게 되는가?**

A. 아마도 그렇다. 크레딧 카드사들은 이자율을 올리기 전에 이를 사전에 통보한다. 따라서 이자율이 더 오르기 전에 크레딧 카드 빚을 청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크레딧 카드사에 전화해서 더 낮은 이자율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만약 다른 경쟁 크레딧 회사에 고객을 뺏긴다고 생각하는 경우 크레딧 회사는 이자를 낮춰준다. 크레딧카드닷컴에 따르면 현재 평균 16.13%인 이자율은 올해 말



17%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만약 보유하고 있는 크레딧 카드사가 0% 이자율을 제공하는 경우 이것을 적극 활용해서 이자율이 높은 크레딧 카드 잔액을 0% 이자로 밸런스 트랜스퍼를 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다. 물론 Balance transfer의 경우 수수료를 물게 되지만 이자를 지급하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다.

**Q. 자동차 대출은 어떤가?**

A. 오토론(Auto loans)의 이자율도 상승할 것이지만 다른 대출과 달리 과도하게 오르지 않는다. 자동차의 경우 타 자동차 딜러와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저렴한 이자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자율보다는 인플레이션으로 새차 및 중고차 가격이 오르는 것이 소비자에게는 더 큰 부담이다.

**Q. 학자금 대출은 어떻게 되나?**

**What about student loans?**

A. 학자금 대출은 고정이기 때문에 이자율의 변동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신규대출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학자금 대출을 채용자 할 계획이면 이자율이 더 오르기 전 지금이 채용자를 하기엔 더 좋은 시기이니 대출 기관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연방학자금 대출은 이자가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신규 학자금 대출 이자의 경우 7월 1일부터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Q. 이자율이 올라가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점은 있나?**

A. 물론이다. 이자율의 인상은 양도성예금증서(CDS), 모니마켓어카운트, 세이빙 어카운트 등의 이자율이 올라간다.

hsb@bostonkorea.com



##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 공인 회계사

정진수

CPA / MBA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공인 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 BBB 법안 재논의... 법안은 축소, 통과가능성 높아져

▶▶ 1면에 이어서

를 준비중인 민주당 연방 하원 피터 웰치 의원은 “현재의 실망을 앞세워 정말 이루기 어려운 숙원사업을 처리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하원에서 통과된 BBB법안에 대한 맨신의원의 반대 후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거론을 한동안 중단했지만 이제 다시 합의점을 도출하려 하고 있다. 맨신 의원은 웨스트버지니아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이외는 별개로 투표권리 법안에 좀더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맨신 의원은 27일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내게 연락했다. 그러나 직접 만나서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는 투표권을 보장해야 하고 투표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투표함 또한 보호해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맨신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BBB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기는 아니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50-50인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우회하는 조정절차를 통해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맨신의 지지가 절대적이다. 따라서 맨신은 언제 어떻게 이 법안을 통과시킬지 통제권을 행사하게 될 전망이다. 맨신 의원은 이 법안의 처리를 늦추자고 해왔으며 특히 이 법안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에 맨신 의원이 동의하기까지는 몇주에서 몇 달까지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의회는 2월 18일까지 연장된 정부 예산안을 다시 연장 또는 통과시켜야 하고 브라이어 대법관의 후임 인준절차도

진행해야 한다.

하원의 진보그룹의원 모임인 프로그레시브 코커스의 프래밀라 자아팔 의원은 지난주 상원은 3월 1일까지 하원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당초 3.5조달러이던 BBB를 2조 달러로 축소해 하원에서 통과시킨 바 있는 민주당이 다시 이 법안을 축소할 경우 진보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맨신과의 합의에 실패했다며 상원 표결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5달간이나 맨신 의원의 의견을 반영해 왔는데 실패했으니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작은 수의 핵심적인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지속해야 한다는 맨신의원의 핵심 요구사항을 고려해 우선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시작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새 길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기자회견에서 2조달러의 BBB법안을 나누어서 기후변화, 에너지, 프리스쿨 의무화 등을 먼저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었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5천500억달러의 기후변화 법안을 이번 패키지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이는 맨신의원도 찬성하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처방약 가격인하, 건강보험 보조를 포함키고 있다. 또한 의무적인 프리스쿨 및 차일드케어 보조법안과 기업 법인세 그리고 고소득자 세금인상을 희망하고 있다.

딕 더빈 상원의원은 “이 법안을 계속 끌고 싶지 않다. 의견의 차이점을 발견해서 가능한 빨리 합의를 도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BBB에서 제외될 수 있는 조항들은 어포더블 하우스건설 보조, 메디케어 보정기 커버리지, 차일드텍스크레딧 연장 등이다.



조 맨신 의원은 “미국인들을 돕는 것이면 무엇이든 모든 것을 들여다 볼 것이다. 그러나 소득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백악관 협상에서 맨신 의원에 제안했던 것은 기후변화, 의료보험 보조, 그리고 보편적인 프리킨더 제공안이었다.

짐 클리번 하원 민주당 서열 3위의 의원은 개인적으로 가장 우선적인 사업이 차일드텍스크레딧과 어포더블 하우스 건설이라면 “BBB가 좌초되는 것처럼 느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BBB의 일부를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프로그레시브 코커스 회원인 로카나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은 상원에서 맨신의원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렴해 통과시키는 경우 비록 실망을 할지라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도 지지하고, 하원의장도 지지하며 역사적인 무료 프리킨더와 기후변화 정책의 실현을 두고 진보의원들이 “나는 투표 안 할 거야”라고 말할 수는 없다. 어떻게 이룰지

지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특히 BBB법안의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기업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 민주당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세금협약에서 약속했던 해외운영 미 기업들의 높은 최소세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 국가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미국에서는 통과시키지 못하는 경우 해외수익에 대한 이중과세의 부담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지방 및 주세금 감면 한도 인상과 차일드텍스크레딧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조 맨신 의원은 차일드텍스크레딧은 저소득 미국민들에게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맨신 의원은 “미국인들을 돕는 것이면 무엇이든 모든 것을 들여다 볼 것이다. 그러나 소득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 지사 에서 민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 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판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에게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정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Michelle Han CPA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어이어나 프레슬리 마사추세츠 연방 하원의원

# 프레슬리 의원, 미셸 우 시장에 "혐오 공격" 안된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한새벽 기자=어이어나 프레슬리 마사추세츠 연방 하원의원을 비롯한 유색인종 선출직 관료들이 미셸 우 시장에게 쏟아지고 있는 “혐오 발언”을 강력히 비판하고, “침묵은 공조”라고 선언했다.

선출직 의원들은 2월 1일 성명서를 통해 “보스톤의 선출직 관료로서 우리는 결코 인종차별적이고 반아시안, 성차별적 발언이 우리 사회에서 일반화 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이 같은 독성있는 혐오는 유색인종 여성 정치인에게 매우 흔치 않는 것이며 이 같은 발언이 여성이 아니며, 유색인종이 아니었던 시장에게도 쓰였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우 시장은 지난 11월 취임이래 계속해서 반대 세력들의 표적이 되어 왔다. 특히 시 공무원들의 백신 의무

화와 실내 음식점 등의 시설에서의 백신 증명 의무화를 발표하면서 반대가 잇따랐다. 일부는 정치적인 논쟁에 집중한 반면 일부는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그리고 개인적인 혐오 발언을 던지기도 했다.

트위터에서 한 사람은 미셸 우를 “우한의 시장”이라고 주장하며 중국 공산당 정부와 연계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일부는 시카고 출신임을 지적하며 보스톤에서 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기도 했다.

또한 최근 시 공무원 백신의무화를 반대하는 시위대들이 로슬린데일 우시장 자택을 새벽에 방문해 확성기를 틀며 우 시장을 “히틀러”라고 지칭하고 곧 감옥에 갇힐 것이기 때문에 두 아들은 “엄마 없이 자랄 것”이라는 터무니 없는 악담을 퍼붓기도 했다.

우 시장은 개인적으로 반대 시위대와 응대하지 않으려 한다면서도

이 같은 시위가 그녀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에게까지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처럼 유색 선출직 또는 고위직 관료들은 반대론자들의 악랄한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 최근 마사추세츠 미 연방 검사장 직에 오른 레이첼 롤린스의 경우 살해협박을 받기도 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어이어나 프레슬리, 서퓙지검 케빈 헤이든 지검장, 서퓙카운티 슈리프 스티브 톰킨스, 서퓙카운티 유산등록원장 펠릭스 아로요, 주하원의원 러셀 홈즈, 브랜디 플루커 오클리, 치나 테일러, 리즈미란다, 존산티아고, 그리고 니카 엘루가도, 주상원의원 리디아 에드워즈, 소니아 쉐-디애즈, 줄리아 메이자, 루드지 루이제우니, 리카도 아로요, 켄드라라, 브라이언 워렐, 타이나 퍼네이드스 앤더슨 등이 서명했다.

hsb@bostonkorea.com

# 풋볼의 대명사 탐 브래디, 22시즌 후 공식 은퇴

(보스톤=보스톤코리아)한새벽 기자=탐 브래디가 2월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식 은퇴를 발표했다. ESPN의 은퇴 보도 후 3일간 탐브래디는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탐브래디

탐 브래디는 “나는 풋볼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스포츠라고 생각해 왔다. 100% 헌신이 없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승리가 정말로 내가 정말 좋아했던 것이다. 매일 매일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통해 나는 나의 가장 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지난 22년 동안 최선을 다했다. 풋볼 경기장에서나 인생에서나 성공에는 결코 지름길은 없었다”고 은퇴사 첫문장을 썼다.

그러면서 그는 “이글은 정말 쓰기 어려웠지만 결국 이렇게 쓴다. 이제 헌신하는 경기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NFL 커리어를 사랑하고 이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일에 쏟아야 할 시간이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8월 45세가 되는 브래디는 7번 슈퍼볼을 우승을 이끌었다. 6번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유니폼으로 나머지 한번은 탐과 베이 버캐니어스에서 이뤘다. 또한 3번의 정규시즌 MVP를 차지했다.

또한 그는 NFL 최다 패싱야드(84,520), 최다 터치다운(624)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최다 경기 승

리 기록(243)까지 보유했다.

또한 67번이나 게임 마지막 승리를 이끄는 터치다운 또는 필드골 드라이브를 성공시켰다. 이중 14번은 포스트 시즌에 이끌었다. 그는 지난 슈퍼볼 51회에서 3쿼터를 28-3으로 뒤지던 경기를 뒤집었고, 2017년 AFC 챔피언결정전에서는 잭슨빌 재규어스에 역전승을 이끌었다. 2017년에는 16-0 정규시즌 전승을 기록하기도 했다.

43세 최고령의 나이로 탐과 베이 버캐니어스에서 슈퍼볼 우승을 이끌었던 브래디는 탐과 베이 동료선수들, 코치, 그리고 브루스 아레인스 감독, 제이슨 리트 제너럴 매니저, 탐과 베이 팬, 세인트 피터스버그 탐과 주민들에게 감사사를 표하고 마지막으로 그의 가족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탐 브래디는 패트리어츠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남기지 않았다.

그의 은퇴는 그동안 패트리어츠와 베이 버캐니어스 두 팀을 뒤따랐던 뉴잉글랜드 브래디 팬들에게는 큰 아쉬움을 남기게 됐다.

hsb@bostonkorea.com

##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제도장 및 마감 자격증    프래온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 형제 떡집

모든 종류 떡 주문 가능!


GRAND RE-OPEN  
축재개업

영업 시간  
딜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요가송의 5분요가

유튜브 검색창에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 초보자 다리찢기! 매일 하지 마세요

요가를 배우러다니지 얼마 안되었을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가수업 때 선생님이 스플릿 자세(다리찢기)를 보여주는데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뻣뻣하기 그지없는 제 다리가 선생님처럼 유연해지려면 도대체 얼마나 걸릴지.. 이번 생애에 가능한 거긴한지..

물론 10년전도 더 된 얘기지만, 어린 시절 무용이나 발레를 배운 경험도 없고 유연성 제로인 제가 이렇게 요가를 가르치게 될지는 당시 상상도 못했지요. 그래서 과거 저처럼 다리찢기 자세에서 힘 들어하는 학생들을 보면 더 잘 이해되고 애정이 갑니다.

굿뉴스는 사람의 몸은 신기하게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변한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대신 한가지 조건은, 꾸준히 움직이고 늘려주고 자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도 집에서 혼자서도 따라할 수 있는 하체 스트레칭 영상을 준비했어요. 앞뒤 다리찢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함으로써, 허벅지 뒤(햄스트링)과 앞부분(대퇴사두근)을 이완시키고 이 과정에서 틀어진 골반도 교정되어 골반과 허리통증 개선의 효과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리찢기를 영상을 보고 단계별로 따라하려면? 유튜브 검색창에서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을 검색한 후, 최근 영상에서 (Day29) 앞뒤 다리찢기 10년 노하우편을 찾아 따라해보세요.

서서하는 Standing Split, 앉아서 하는 Front Split 이렇게 두가지 다른 스플릿 자세를 소개해드립니다.

- 1. 스탠딩 스플릿 자세 배우기
- 1단계 선자세에서 상체를 구부려 두 손을 바닥

에 대고 오른발을 뒤로 길게 뻗어줍니다. (손가락을 세워도 좋아요)

2단계 숨을 깊게 내쉬면서 상체를 숙여 지지하고 있는 왼다리쪽으로 가깝게 가져가고 뻗은 오른 다리는 천정으로 보냅니다.

주의! 처음부터 무리해서 상체를 숙이려하지 말고, 호흡과 함께 조금씩 왼다리 뒷면을 길게 펴는 노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3단계 그대로 정지상태에 있어도 좋고, 1단계와 2단계를 반복하면서 버터보고 충분히 스트레칭 후 오른다리를 내려 휴식합니다.

4단계 반대 방향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2. 프론트 스플릿 자세 배우기

1단계 네발기기 자세에서 왼발을 앞으로 두고 런지자세를 취합니다.

2단계 내쉬는 숨에 왼다리를 길게 뻗어줍니다.

주의! 이때 왼다리가 100퍼센트 완전히 안 펴져도 상관없어요

3단계 1,2단계를 반복하며 천천히 왼 허벅지 뒷 근육을 늘려줍니다.

4단계 유연성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줍니다.

주의! 이 동작을 처음 따라하시는 분들은 꼭 영상을 참고해서 호흡과 함께 충분한 워밍업 후에도 해주세요



처음부터 생각만큼 잘 벌어지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쉽게 얻어지는 건 쉽게 잃어버린

다고 하죠? 반복의 힘을 믿고 주 2-3회 꾸준히 하다보면 다리가 조금씩 열리고 엉덩이가 바닥과 조금씩 가깝게 내려가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조금씩 마음으로 매일 무리해서 다리를 벌리다보면 자칫 햄스트링의 부상을 가져올 수도 있으니 초보자들은 격일 수련을 추천합니다.

한 가지 더! 이 과정에서 구부정한 자세도 교정되고 허벅지 근살도 빠져 상하체 균형잡힌 몸매를 가지게 되실 거예요.

유튜브도 좋지만 새해에는 라이브로 선생님과 소통하며 직접 자세 교정도 받고 싶다면?

하연쌤과 함께하는 매주 라이브 ZOOM 요가&필라테스

온라인 라이브 ZOOM 요가&필라테스 클래스의 장점

1.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단기간 '체중감량'은 물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의 효과
2. 꾸준한 회원관리로 지속적인 운동루틴을 생활화하도록 격려
3. 모니터를 통한 실시간 자세교정 (1:1개인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신청 가능)

'기적의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1회 무료체험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아이디 yogafullnesslife 로 본인 이메일 주소와 함께 신청해주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몰니사라이프 대표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s://bit.ly/3w9ks4u>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lness.life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福

HAPPY NEW YEAR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새해에는 임인년, 흑호랑이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한해가 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일이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2년 새해에도 차별화된 전문성과 노하우,  
그리고 최고의 서비스로 부동산 매매/임대/투자  
관련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이슨 전 드림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COMPASS

# 연준의 강경 통화 정책 주택시장에 강한 파급효과

모기지 금리 급등으로 주택 구매자에게 부담지워  
모기지 채권의 수요 공급 불균형으로 현 상황 지속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연방준비은행의 강경 통화 기조에 모기지 금리가 급등하고 주택 구매에 나선 이들에게는 더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31일 보도했다.

팬데믹 이후 연준은 모기지를 묶어 채권으로 판매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의 최대구매자였다. 연준은 이제 주택저당증권의 매입을 점차 줄여 2.7조달러에 달하는 증권 자산을 축소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팬데믹 당시 가장 많이 사들였던 자산 중 하나인 주택저당증권을 이제 점차 팔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같은 시장의 변동은 블루칩 주식에서부터 정크본드까지 모든 분야에 충격파를 던졌다. 재무성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며 수익률은 증가했다. 즉 대출 이자율이 전반적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다.

FHN 파이낸셜의 모기지 전략가인 윌트 슈미트는 “두달만에 양적완화에서 양적 긴축으로 돌아설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모기지 채권의 불안은 각 가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기지채권(주택저당증권) 수요의 감소함에 따라 높은 수익율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채권 발행자들은 모기지 이자율을 높이고 있다. 이미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팬데믹 시작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상태다.

데이비드 배타니 길드 모기지의 자본시장 수석 부사장은 “채권(주택저당증권;MBS)구입이 줄어들면서 채권의 수요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밝혔다.

연준은 지난 26일 향후 금리인상 및 양적완화 축소 계획을 발표하자 모기지 대출기관은 급격히 이자율

을 올리기 시작했다. 배타니는 연준이 이를 발표하면서 이자율은 0.06포인트가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최근 시장에서는 여러 면에서 2020년 봄에 발생했던 것의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락다운을 실시하자 연준은 수조달러의 채권을 사들일 것이라고 발표했고 모기지 채권(주택저당증권)의 가격을 올리다가 수익율은 떨어졌다. 사상 최저의 이자율은 리파이낸싱의 바람을 일으켰다.

동시에 현금을 보유한 사업체와 개인들은 대출을 줄였고, 이는 은행들에게 수조달러의 예금을 모기지 쪽으로 돌릴 수 있었다. 일부 은행들은 이 은행 예금을 모기지 본드 매입으로 돌렸다. 예를 들어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해 말 거의 5천억달러의 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준이 이자율을 높이는 경우 은행들은 이중 일부를 현금화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모기지 채권의 경우



연방준비은행의 강경 통화기조에 모기지 금리가 급등하고 주택 구매에 나선 이들에게는 더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가장 강력한 구매자였던 연준과는 행 둘을 잃게 된다. 금융 펀드 매니저들은 전체 시장의 아주 작은 부분만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펀드 매니저들이 얼마만큼을 구입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질 수도 있다.

트레이드 웹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재무성 채권 대신 모기지 채권을 구입하도록 요인이 되는 추가 수익률이 지난주 약 0.25퍼센트 정도 올랐다. 이는 팬데믹 초기 이래 최고의

수치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는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모기지채권 전략가 새티시 만수카니씨는 “우리는 아직 끝날 때 수준의 50-60%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FHN 파이낸셜의 슈미트씨는 재정 위기 직후 역사적 시장의 움직임에 근거해 이 같은 수익율은 0.1에서 0.2퍼센트 정도 더 오를 것으로 기대했다.

##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http://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http://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개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http://www.bostonkorea.com)



뉴욕에서 한 어린이가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 코로나 신규확진 30만명대...정점서 20일만에 절반이하로 '뚝'

## 사망자는 여전히 증가세...CDC "미접종자, 사망 확률 97배 높아"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현 특파원**  
=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면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정점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기준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2주 전보다 49% 줄어든 38만5천425명이라고 3일 집계했다.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최고기록인 지난달 14일의 8만6천795명에서 20일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확산이 가팔랐던 것만큼 확진자 감소 곡선도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1월 하루 평균 1만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던 코네티컷주에선 확진자가 2천명 아래로 내려갔고, 1월 중순 하루 평균 확진자가 6만명을 넘었던 플로리다주에서도 최근엔 2만5천명 아래로 떨어졌다.

한때 16만명에 근접하며 팬데믹 최고치를 썼던 하루 평균 입원 환자도 2주 전보다 16% 감소하며 13만3천600여명으로 내려왔다.

다만 몇 주의 시차를 두고 확진자 추세를 따라가는 사망자는 여전히 상승 중이다. 2일 기준 2주 전보다 35% 늘어난 2천658명으로 집계됐다. 오미크론 재확산 이후 최고치이자,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왔던 작년 겨울 재확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로셸 월렌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전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미(未)접종자는 백신과 부스터샷(추가 접종)을 모두 맞은 사람보다 코로나19에 걸려 죽을 확률이 97배나 높다고 밝혔다.

월렌스키 국장은 지난해 12월 4일 기준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백신 미접종자의 주간 평균 사망자 수는 10만명당 9.7명이었지만 백신 접종자에선 10만명당 0.7명으로 14배의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들에게선 주간 사망자가 10만명당 0.1명으로 나타나, 백신 미접종자는 부스터샷을 접종한 사람보다 죽을 확

률이 97배 높다는 의미라고 월렌스키 국장은 부연했다. 그는 "이 데이터들은 백신과 부스터샷 접종이 오미크론 확산 속에서

도 여전히 중증과 입원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것을 확인해준다"며 백신접종을 강력히 권고했다. sisyph@yna.co.kr

# 미군에 포위된 IS 수괴의 최후 궁지 몰리자 자폭, 가족도 희생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통미국이 3일(현지시간)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인 이슬람국가(IS)의 우두머리 아부 이브라힘 알하시미 알쿠라이시를 제거했다.

미 특수부대가 2019년 10월 IS의 수괴였던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에 이어 후계자로 오른 알쿠라이시마저도 특수작전을 통해 없애버린 것이다.

AF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을 종합하면 이번 작전은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가 수행했다. 시리아 시간으로 3일 오전 1시 전후에 3대의 미 헬기가 투입돼 알쿠라이시가 은거하던 시리아 북서부 이德利프주의 아트메흐 마을에 도착했다.

이德利프주는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를 비롯한 극단주의 세력의 본거지이고, 터키 국경 근처인 아트메흐는 시리아 난민 캠프가 흩어져 있는 지역으로 극단주의 세력이 은신해 온 곳이기도 하다.

라미 압델 라흐만 시리아인권관측소장은 미 헬기가 쿠르드족이 통제하는 도시인 코바니에서 이륙했고, 쿠르드 정예 병사들도 작전에 합류했다고 전했다.

이번 작전에는 20명이 넘는 특수부대원들이 투입됐고, 무장 헬기와 공격용 드론 등의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작전팀은 3일 오전 1시 전후에 올리브나무로 둘러싸인 3층짜리 단독 주택을 에워쌌다. 알쿠라이시가 거주하던 가옥이었다.

뒤이어 아랍어로 이 집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확성기 경고음이 울려 퍼졌고, 여성과 아이들은 이 지역을 떠나라는 방송도 있었다.

한 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알쿠라이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내 기관총 등 총성이 들리는 교전이 오갔고, 이 과정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다.

미 당국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알쿠라이시가 폭탄을 터뜨려 자폭했고, 이 과정에 아내와 자녀들도 함께 숨졌다고 말했다. 미 당국은 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이 폭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알쿠라이시를 지키던 IS 조직원은 2층에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저항하다 아내와 함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P는 이 부부의 아이 1명도 숨졌다고 전했다.

작전 과정에 미군 헬기 1대가 기계적 문제를 일으켜 비상착륙했고,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미군이 지상에서 폭파시키는 일도 있었다.

미군은 이곳에 투입된 지 약 3시간 후인 오전 4시 전후로 헬리콥터를 타고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 신신마트 당일배송

**배달 서비스**

**EXPRESS DELIVERY**

각종 고기와 반찬, 쌀, 라면, 야채, 과자 뿐만 아니라 신선한 생선회(Mr. Sushi) 등을 12시 이전에 주문하시면 안전하게 당일 배송해 드립니다.  
\$100불 이상 / 배송비 10불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은 Free Delivery 해드립니다.

가격과 품질에 정직합니다  
**정성들여 만든 신신 스페셜**

얼큰한 해물 짬뽕국물 (\$7.99)  
순두부 (\$7.99)  
육개장 (\$9.99)  
싱싱한 홈메이드 신신만두 (\$25.00)  
(고기만두, 김치만두)

싱싱한 스시, 사시미 배달  
즉석 김밥, 홈메이드 만두 등  
당일 배송 가능

**ALL 유기농 늘푸른 농장**

한국포도 \$19.99/pack, \$36.00/box  
메주콩, 검정콩 \$29.99/5LB  
배즙, 포도즙, 대추즙 \$29.99/25packs  
마른대추 \$29.99/1bag  
고춧가루 \$69.99/3.8LB



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에서 활주로 제설·제빙 작업이 진행 중인 모습.

# 겨울폭풍 강타로 항공기 4천800대 결항에 20만곳 정전

### 1억명 이상 영향권...200명 사망 한파 1주년 텍사스 긴장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 곳곳에서 폭설과 강풍을 동반한 겨울폭풍이 이틀째 불어다쳐 항공편 결항과 정전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미 국립기상청(NWS)은 3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북부와 뉴멕시코주, 중서부 일대, 메인주를 비롯한 북동부 일부 지역에 걸쳐 겨울폭풍 경보를 발령했다.

최소 25개주, 1억 명 이상의 주민이 겨울폭풍의 영향권에 놓였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항공편 추적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미 국내선과 미국발 또는 미국행 국

제선을 합쳐 모두 4천812편이 취소됐다.

미국에서 하루 평균 4만5천 편의 항공기가 이동한다는 점에서 전체 항공편의 10% 이상이 취소된 셈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활주로를 얼어붙은 댈러스-포트워스 국제공항에서 전체 항공편의 3분의 2 이상이 취소되는 등 텍사스주 일대 공항들의 마비가 심했다. 이날 텍사스주 북부에는 5~11cm의 눈이 예보됐다.

특히 지난해 2월 이례적 한파에 따른 정전 사태로 200명 이상이 숨졌던 텍사스는 1년 만에 다시 찾아온 맹추

위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댈러스-포트워스 일대를 통과하는 20번 고속도로에서 눈과 진눈개비로 길이 미끄러워진 탓에 교통사고가 잇따랐고, 이 지역 공립학교는 4일까지 문을 닫기로 했다.

일리노이주 57번 고속도로는 일부 구간을 7시간 동안 차단하기도 했다.

오후 1시30분(미 동부시간) 현재 테네시주 12만 곳, 텍사스주 6만 곳을 포함해 미 전역에서 20만 곳이 넘는 가정 또는 기업이 정전 피해를 겪는 것으로 단전 추적사이트 '파워아우티지'가 집계했다.

이번 겨울폭풍으로 인한 폭설도 계속되고 있다.

오하이오·뉴욕주와 뉴잉글랜드(북동부 6개주) 일부 지역에서 30~45cm의 눈이 내리고, 일리노이·인디애나·미시간주 일대에도 30cm 이상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메인주 일부 지역은 최대 50cm의 적설량

을 기록할 전망이다.

피해 지역 주정부는 주민들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를 것을 권고하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 테슬라, '이유없이 급제동' 결함 민원 잇따라...미 당국 조사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김윤구 기자 = 테슬라 전기차가 고속에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저절로 작동해 제동이 걸린다는 운전자 민원이 잇따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HTSA는 접수된 관련 민원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 데이터를 살펴보고 테슬라와 협의 과정을 거쳐 데이터상 관련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이날 성명을 통해 밝혔다.

NHTSA 웹사이트에 올라온 운전자 민원에 따르면 지난달 한 운전자는 위스콘신주 매디슨에서 2021년형 '모델3' 차량을 고속으로 몰던 도중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려 사고가 날 뻔했다고 민원을 올렸다.

그는 "시속 60마일(약 97km)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이용해 주행하고 있었다"며 "큰 화물 트럭이 반대 차선에서 오자 내 테슬라 차량이 급제동해서 뒤따라오던 트럭과 부딪힐 뻔했다"고 밝혔다.

웨스트버지니아주 라벨릿에서 2021년형 모델3을 모는 한 운전자도 "크루즈 컨트롤로 주행하던 도중 차가 아무 이유 없이 급제동했다"며 "뒤차와 부딪힐 뻔한 위기를 아슬아

슬하게 피했다"고 썼다.

그는 "이런 급제동이 여러 차례 벌어져서 무서웠다"며 "이 때문에 뒤에 따라오는 차가 있으면 오토파일럿과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꺼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테슬라는 최근 완전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해 FSD 베타 버전을 탑재한 미국 내 차량 약 5만4천대를 리콜하기로 했다.

이는 FSD가 정지 신호에서 다른 차량이나 행인이 없다고 판단하면 차를 완전히 멈추지 않고 속도만 약간 줄여 그대로 주행하는 '롤링 스톱'(rolling stop) 기능이 교차로에서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한편 블룸버그에 따르면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능이라고 선전해온 '오토파일럿'(Autopilot) 시스템과 관련해 또다시 소송을 당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12월 미국 인디애나주의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차량이 멈춰있던 소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다치고 그의 아내가 숨진 사고와 관련된 것이다.

원고는 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시스템의 결함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보스톤코리아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습시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가족을 지킵니다



# 신규확진 이틀째 2만명대 전망...오늘부터 동네병원서

## 인터넷에서 가능한 병원 확인... PCR 검사는 고령층 등 고위험군만 343개 병·의원, 391개 호흡기클리닉 등 734곳 참여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조3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재택치료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부터 전국 343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검사·치료를 시작하고, 순차적으로 참여 병·의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할 것에 대비해 동네 병·의원급으로까지 검사·치료 체계를 확대해 대응 역량을 키우려는 것이다.

실제 지난 설연휴 기간에도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면서 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수가 2만270명으로 처음 2만명을 넘은 데 이어 2일 오후 9시까지 1만7천920명이 새로 확진, 3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확진자수도 2만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일까지 대한의사협회가 신청을 받은 코로나19 검사·치료 희망 의료기관은 총 1천4곳이다. 이 가운데 우선 343개 병·의원이 이날부터 진료를 시작하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에 참여하는 이들 의료기관을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부르기로 했다.

확정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의 목록은 이날 중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홈페이지에

재될 예정이다. 정부는 추후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 지도에서도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일반 환자와 코로나19 의심환자가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마련하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려면 코로나19 의심 환자와 일반환자의 동선을 구분하고, 검체 채취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미 동선 분리가 완비되고 음압 시설 등이 설치돼 있는 '호흡기전담클리닉'도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 검사·치료를 들어간다.

전국 439개 호흡기전담클리닉 중 391곳이 이날부터 새 검사진료체계에 참여하고, 나머지 호흡기전담클리닉들도 시설 준비 등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시작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명단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늘려나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병·의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



2일 서울의 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 일반 외래 환자의 동선과 분리된 전용입구가 마련돼 있다. 국내 모든 코로나19 검사기관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새 체계를 가동하는 시점인 오는 3일부터 선별진료소뿐만 아니라 전국의 임시선별검사소와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코로나19 진료에 동참하는 일부 병·의원 이 새 검사체계에 동참한다.

를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동네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진찰, 검사부터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호흡기 환자를 통합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다면, 의사는 기본 진찰을 한 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음성이 나오면 감기약을 처방하는 등 일반진료를 한다.

신속항원검사서 양성 나왔다면 PCR 검사로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판단하고, 확진이면 해당 환자의 재택치료를 관리한다. 경우에 따라 먹는치료제를 처방할 수도 있다.

의료기관에서 하는 신속항원검사는 비인두도말에 있는 검체를 채취하는 전문가용 키트를 사용한다.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면 검사비는 발생하지 않지만 진찰료(의원 기준 5천원)는 부담해야 한다.

이날부터 새로운 검사치료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중에는 진단검사에만 참여하는 병원도 있고, 검사와 치료를 모두 시행하는 병원도 있다.

선별진료소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날까지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고, 그 외는 신속항원검사를 해야 한다. 신속항원검사는 관리자의 감독 아래 검사자가 자가검사키트로 직접 시행한다.

PCR 검사를 받는 고위험군은 60

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와 밀접접촉 등 역학적 관련이 있는 사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사람, 신속항원검사서 양성 나온 사람,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 등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까지 전국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 총 220만명의 자가검사키트를 배송했고, 오는 4일까지 추가로 466만명의 키트를 배송할 계획이다.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는 음성 확인서는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하에 신속항원검사를 해서 음성 나온 경우와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 병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이 나온 경우 발급 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은 24시간이다. [abbie@yna.co.kr](mailto:abbie@yna.co.kr)



###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mailto: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FEB. 4th - FEB. 10th, 2022

## H마트와 함께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몸의 거리는 넓히고, 마음의 거리는 좁혀야 할 시간. H 마트 고객분들과 직원분들의 안전을 위해 6피트 안전 거리를 확보해주세요!  
Join the H Mart Social Distancing Campaign, to help slow down the spread of COVID-19 for you and our H Mart family. Keeping 6 feet apart will bring us together again.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ID : @hmart\_ma

<b>Sumo Mandarin</b> 한라봉 BOX <b>\$19.99</b>	<b>Washington Fuji Apple</b> 워싱턴 후지 사과 PREMIUM QUALITY/LB <b>\$1.49</b>	<b>Navel Orange</b> 네이블 오렌지 SIZE 36 S/EA 3 FOR <b>\$3.99</b>	<b>White Cabbage</b> 양배추 LB <b>\$0.99</b>	<b>Korean Pear</b> 한국산 신고배 PRODUCT OF KOREA 9 CNT/BOX <b>\$36.99</b>
<b>Korean Chestnut</b> 한국산 밤 LB <b>\$4.99</b>	<b>Idaho Potato</b> 아이다호 감자 LB <b>\$0.79</b>	<b>Kabocha</b> 단호박 LB <b>\$0.99</b>	<b>Sweet Potato</b> 코이모 고구마 LB <b>\$2.49</b>	<b>SOONYEOWON Tofu</b> 수녀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b>\$1.59</b>

###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b>U.S.D.A CHOICE</b>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b>\$10.99</b>	<b>U.S.D.A CHOICE</b> Fresh Beef Eye Round 생 홍두깨살 (장조림용) CHUNK/LB <b>\$8.99</b>
<b>U.S.D.A CHOICE</b> Fresh Boneless Pork Loin for Cutlet 생 돼지등심 컷릿 (돈까스용) SLICED/LB <b>\$5.99</b>	<b>U.S.D.A CHOICE</b> Fresh Pork Single Belly 생 삼겹살 (수육용) CHUNK/LB <b>\$7.99</b>
<b>U.S.D.A CHOICE</b> Fresh Boneless Chicken Thigh 생 뼈없는 닭사태살 LB <b>\$2.99</b>	<b>U.S.D.A CHOICE</b> Marinated Pork Bulgogi 양념 돼지불고기 LB <b>\$6.99</b>

###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b>SEVEN SEAS</b> Frozen Salted Sole Fillet 세븐 시즈 냉동 자반 가자미 WILD CAUGHT 12 OZ/PKG <b>\$4.99</b>	<b>OHGWANG</b> Frozen Spicy Pollock Snack 오광 냉동 매콤 황태채 4 OZ/PKG <b>\$8.99</b>
<b>Headless Tiger Shrimp</b> 머리없는 타이거새우 SIZE 13-15/LB <b>\$13.99</b>	<b>TONGTONGBAY</b> Frozen Cooked Mussel Meat 동동배 냉동 지속 홍합살 16 OZ/PKG <b>\$4.99</b>
<b>Frozen Squid Tube</b> 냉동 튜브 오징어 LB <b>\$4.99</b>	<b>Striped Bass</b> 양식 농어 LB <b>\$7.99</b>

### SMART CARD MEMBER ONLY

<b>H MART SMART CARD ONLY</b> KYONG GI MI Medium Grain White Rice 경기미 40 LB <b>\$34.99</b>	<b>H MART SMART CARD ONLY</b> HAIO Pancake/Frying Batter Mix 해오름 부침/튀김가루 2 LB <b>\$1.99</b>
<b>H MART SMART CARD ONLY</b> DONGSUH Maxim Instant Coffee Mix 동서 맥심 커피믹스 ORIGINAL/MOCHA GOLD 100 STICKS/PKG <b>\$14.99</b>	<b>H MART SMART CARD ONLY</b> HAIO Yuza Tea with Honey 해오름 유자차 2.2 LB <b>\$5.99</b>

<b>HARU HARU</b>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 쌀 15 LB <b>\$12.99</b>	<b>NONGSHIM</b> Shin Ramyun Noodle Soup 농심 신라면 4.2 OZ X 16 EA/BOX <b>\$12.99</b>	<b>CHUNGJUNGONE O'Food</b> Brown Rice Red Pepper Paste 청정원 오 푸드 순창 100% 현미 태양초 찰 고추장 6.6 LB <b>\$14.99</b>	<b>HAIO</b> Beef Short Rib/Bulgogi Marinade 해오름 소갈비/소불고기 양념 1.85 LB <b>\$4.99</b>	<b>HANSANG</b> Seasoned Small Octopus 한상 열판 주꾸미 1.43 LB <b>\$16.99</b>
<b>HAIOREUM</b> Korean Style Noodles - Somen 해오름 막국수 5 LB <b>\$4.99</b>	<b>Q1</b> Homemade Sweet Korean Pan Cake Mix 큐원 홈메이드 찰호떡 믹스 ORIGINAL 19.4 OZ <b>\$3.99</b>	<b>HAIOREUM GOMPYO</b> Wheat Flour 해오름 곰표 중력 밀가루 5.5 LB <b>\$3.99</b>	<b>DONGWON</b> Luncheon Meat Canned Ham 동원 런천미트 12 OZ <b>\$2.99</b>	<b>DAMIZLE</b> Walnut, Almond Adlay Tea 다미줄 호두 아몬드 울무차 50 STICKS/PKG <b>\$12.99</b>
<b>HAIOREUM</b> Peeled Roasted Chestnut 해오름 껍질 깬 맛밤 5.29 OZ 2 FOR <b>\$3.00</b>	<b>ORION</b> Choco Pie 오리온 초코파이 16.5 OZ <b>\$3.99</b>	<b>MAMISON</b> Zipper Bag 마미손 지퍼백 (20매) S (18X20 CM) /M (25X30 CM) /L (30X35 CM) -\$1.44-3.49 <b>\$1.09-2.59</b>	<b>KüHAUS</b> Fan Style Ceramic Heater 쿠하우스 선풍기형 세라믹 히터 WHITE/EA -\$89.99 <b>\$54.99</b>	<b>HELLO! PTC</b> Mini Ceramic Fan Heater 헬로! PTC 미니 세라믹 팬 히터 PINK/MINT-EA -\$39.99 <b>\$24.99</b>

프리미엄 김치 브랜드  
**1000 YEAR KIMCHI**  
TASTE THE BOLD TRADITION

유산균 김치 / 100% 천연재료 사용

###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사장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부사장 애나 정**  
617.780.1675  
Boston Branch Manager  
anna@bostonpremierrealty.com

**이사 이제봉**  
781.654.5281  
South Shore Branch Manager  
jeblee@bostonpremierrealty.com

**Steve Kwon**  
508.326.6285  
Director of HR/Customer relationship  
Steve@bostonpremierrealty.com

**Kathy Eunsuk Song**  
413.313.4165  
Manager of Hadley Branch  
kathysong2019@gmail.com



**크리스틴 손**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오성빈**  
978.505.3736  
osb@bostonpremierrealty.com



**Nikkie Park**  
617.447.0591  
nikkiepark@bostonpremierrealty.com



**이현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최은경**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사라 유**  
617.838.5787  
sara@bostonpremierrealty.com



**Rick Shin**  
781.530.0034  
ricks@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다이애나 김**  
617.271.2037  
diana@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지나 최**  
978.866.3248  
gina@bostonpremierrealty.com



**최진민**  
617.877.0387  
jinchoi52@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콥 신 617.710.8836**  
jacob@bostonpremierrealty.com

**앤드류 리 857.540.1588**  
andrew@bostonpremierrealty.com



**피터 주**  
617.780.7839  
peter@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순**  
781.800.3412  
bostonyi@bostonpremierrealty.com



**송문주**  
213.503.0397  
marcia@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최**  
413.507.1402  
mickichoi@gmail.com



**한혜숙**  
781.999.1214  
hhan@bostonpremierrealty.com



**샬리 임**  
781.690.4309  
hyunmi@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chopra@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6000@bostonpremierrealty.com



**황수진**  
617.538.6973  
sujinhwang1@gmail.com



**레이첼 김**  
617.852.7485  
rachelkim@bostonpremierrealty.com



**Jason Chen**  
978.277.8439  
song@bostonpremierrealty.com



**Henry Nguyen**  
617.803.8341  
henry@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406.98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51.402.5194  
minyong@bostonpremierrealty.com



**제이크 김**  
781.956.0409  
drjakekim@bostonpremierrealty.com



# PREMIER WORKS

좋은 사람들이 우리집처럼 여기고 정성껏 일하는 PREMIER WORKS. 각각 다른 레벨의 일에 맞는 인력이 투입되어서 비용을 절감합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인력이 공정 관리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합니다.

**홈 리노베이션, 홈 익스텐션, 핸디맨잡, 배관, 전기, 난방, 커머셜/식당 디자인 시공.**

“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for a job well done. The floors look terrific! I know the project was a challenging one, but I'm happy to say you and your team more than met the challenge. In addition, a concern I've had with contractors is not following up with loose ends. I'm happy to report all follow up requests were completed in a timely manner. In short, I highly recommend and will continue to use Premier Works for all of my flooring needs!

Sincerely, Mr. M. Malden, MA ”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 Property Management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건물을 관리해 드립니다. 건축가, 부동산, 건축시공 전문가들이 함께 관리 합니다. All size condo, single family, multi family, commercial, Hands Free, All in One Service

**렌트비 관리, 유지관리, 테넌트관리**



**Premier Realty Group**  
617.515.1162  
info@bostonpremierrealty.com

## WEEKLY SPECIAL



**10 Nouvelle Way**

Listed Yesterday,  
Offer Accepted Today !!

# 닷새 만에 58개국 점령한 K-좀비... '지금 우리 학교는' 인기 확산

첫날 25개국 1위로 출발해 상승세 계속...  
'제2 오징어게임' 기대  
학교 배경으로 차별화 · 현실 고발 · ...  
할리우드 뺨치는 역동적 좀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김우진 인턴기자 = 넷플릭스 한국 새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3일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론에 따르면 '지금 우리 학교는'은 공개 하루 만에 넷플릭스 TV쇼 부문 순위 1위에 오른 뒤 닷새째인 전날까지 정상을 지키고 있다.

지난달 28일 전 세계에 공개된 드라마는 다음날 25개국에서 1위에 올랐고, 이틀째에는 44개국, 사흘째 46개국, 나흘째 54개국, 닷새째 58개국으로 흥행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정상을 차지한 국가들에는 프랑스, 독일, 핀란드, 캐나다 등 유럽과 북미 대륙 나라들이 포함됐다. 미국에서는 3위로 출발해 한단계 상승한 2위를 기록했다.

넷플릭스 공식 집계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시청 시간은 1억2천479만 시간으로 그 주의 영어·비영어 시리즈를 통틀어 1위를 차지했다.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지난해 돌풍을 일으킨 '오징어 게임' 뒤를 잇는 메가 히트작이 될 것이라 기대가 적지 않다.

◇ 고등학교 배경으로 차별화한 좀비물...각양각색 캐릭터 눈길

동명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지금 우리 학교는'은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고등학교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좀비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번져나가고, 남아 있는 생존자가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전개는 기존 좀비물과 다를 바 없지만,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삼아 신선함을 샀다는 평가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좀비물은 기존에 굉장히 많았지만,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신선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다"며 "방송실, 과학실 등 학교 곳곳을 옮겨 다니며 극이 진행된다 보니 긴장감을 잘 유발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

좀비 떼가 출몰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각양각색 학생들의 반응도 캐릭터로 잘 살렸다는 평가다.

좀비에게 물릴 위기에 친구의 손을 놓지 못하는 온조(박지후 분), 다른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방패 삼아 생존하는 귀남(유인수),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남 탓만 하는 나연(이유미) 등 다채로운 캐릭터가 눈길을 붙잡는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마치 표를 만들어놓고 설정한 것처럼 (특징이) 겹치는 캐릭터가 없도록 잘 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원래 모두 친구이고 나름의 사연과 역할을 갖고 있다 보니 '내 주변에 저런 친구가 있다'는 기시감이 들게 한다"며 "이런 점이 외국인들도 수긍하면서 보게 만드는 매력"이라고 분석했다.

◇ 사회 축소판...학교 문제 넘어 현실 고발 메시지

사회의 축소판인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삼으면서 학내 문제를 넘어 현실을 고발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도 '지금 우리 학교는'의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좀비 바이러스가 퍼져 학교는 전 세계가 3년째 겪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팬데믹과 자연스럽게 오버랩된다.

좀비 떼를 통제하지 못하고 도시를 봉쇄해버린 정부, 살아남기 위해 대걸레 자루를 쥐고 좀비 떼와 싸우는 학생들의 모습은 코로나19로 혼란에 빠진 사회속 우리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드라마 속 좀비를 팬데믹에 빗대며 "세계를 뒤흔드는 어두운 실존주의를 그린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관객들에게는 더 가슴 아픈 지점도 있다. 여러 차례 구조를 요청하지만, 도착하지 않는 구조대나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학생들의 대사는 세월호 참사를 빚댄 대목으로 꼽



한다.

드라마는 학교 폭력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기생수'라고 부르며 무시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폭력과 차별이 만연한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들춰낸다.

또 아이들이 살아남기 위해 좀비 떼와 싸우는 과정에서 내리는 선택과 결과들 역시 인간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공감을 사고 있다.

이재규 감독은 앞선 제작발표회에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학생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는 작품"이라며 "사람들이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했다"고 연출 의도를 설명했다.

◇ 'K-좀비' 자리매김...역동적인 움직임 호평

'지금 우리 학교는'은 한복입은 좀비들을 탄생시켰던 '킹덤'에 이어 교복 입은 좀비를 세상에 선보이며 'K-좀비'를 다시 한번 세계에 각인시켰다.

사실 2019년 '킹덤'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좀비는 서양 작품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이제 한국은 학원물과 좀비물을 결합한 변주를 능수능란하게 선보일 수 있는 나라로 자리매김했다.

드라마의 인기에는 이야기 전개, 캐릭터, 메시지 외에도 좀비를 실감나게 구현한 배우들의 연기력과 분장, 컴퓨터그래픽(CG) 등 기술의 공도 크다. 배우들은 좀비의 몸동작을

연기하기 위해 촬영 3개월 전부터 혹독한 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학생들이 그르렁 소리를 내고, 우두둑 소리를 내며 기괴하게 몸을 쥐는 움직임 등은 오랜 시간 좀비물을 만들어온 할리우드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다.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던 전통적인 좀비들과 달리 빠르고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점도 긴장감을 높인다는 평가를 받는 요소다.

미국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는 "복도를 따라 팽팽하게 내달리는 미션, 강당을 미친 듯이 질주하는 장면들이 특별한 스릴감을 선사한다"고 언급했다.

eran@yna.co.kr



간단하고 신속한

주택 용자

##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켈리 김 입니다.  
주택에 관한 모든 용자들 도와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 · 낮은 이자율 · 최상의 결과  
개인별 맞춤 용자 · 캐쉬아웃

바로 연락 주세요.

“ 급하게 시작한 상태이고 준비가 미약한 제 상태에서 괜찮은 집을 찾았지만 주변에서 안될수도 있다고 했지만 제 상황을 맞춰서 시간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켈리님을보고 만나지도 않았고 느껴지는 강한믿음!! 이분은 정말 이분야에서 정말 최고이신것 같습니다. 미국말이 더 편하시분인데도 한국말로 자세히 제가 알수 있도록 언제나 빠르게 진행해주시고,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 Lim

”



### 켈리 김

한국어, 영어 가능  
 주택대출 담당 - nmls #2027241  
 FL, MA, ME, NJ, NH, RI, TX 라이선스.  
 이메일: [kkimthielen@radiusgrp.com](mailto:kkimthielen@radiusgrp.com)  
 전화: 617.733.5014  
 한국어 웹사이트: [info.radiusgrp.com/ko/kthielen](http://info.radiusgrp.com/ko/kthielen)  
 English Website: [www.radiusgrp.com/kelliekimthielen](http://www.radiusgrp.com/kelliekimthielen)



600 Longwater Drive, Suite 107, Norwell, MA 02061

Kellie Kim Thielen, Loan Officer - NMLS # 2027241; Licensed in MA, ME, NH, NJ, RI, TX. Employed by radius financial group inc., NMLS #1846., FL Lender/ Servicer MLD309/MLD1562; MA Lender/Broker MC1846 ME SLM6596; NH 7986-MB; NJ Residential Mortgage Lender License and RMLA-Licensed Mortgage Servicer Registration 1846; RI Licensed Lender/Broker 20031544LL/20183611LB; TX SML Mortgage Banker Registration Equal Housing Lender.

#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 식당 온라인 오더와 온라인 페이먼트를 한자리에서 해결
- 헤어와 네일 살롱의 온라인 예약과 온라인 페이먼트를 컴퓨터로
- 다양한 옵션을 완비한 디펜더블 컴퓨터로 간단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식당	살롱
온라인 음식 주문과 지불 epipay™	온라인 예약 관리 epiday™
온라인 매장 관리	온라인 매장 관리
고객 관리	고객 관리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GIFT CARD 프로그램	GIFT CARD 프로그램
종업원 관리	종업원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Dependable Computer is an authorized independent reseller of United POS Solutions, Inc."

Email : [mchae@dependableusa.com](mailto: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http://dependableusa.com)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thony (Dubleu) Parish of Korean Church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은 새 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 미사**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 유튜브 채널주소  
<https://bit.ly/2j16ZdT>

Contact: [stadparish@gmail.com](mailto:stadparish@gmail.com)  
617-558-2711

45 Ash St. Newton MA 02458 / 617-668-2711  
[stadparish@gmail.com](mailto:stadparish@gmail.com) / [stadparishchurch.org](http://stadparishchurch.org)  
[www.facebook.com/stadparish](http://www.facebook.com/stadparish)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http://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mailto:choisigns@yahoo.com)

JUST LISTED:  
FANTASTIC NEW BUSINESS  
OPPORTUNITY IN BROOKLINE!  
드라이클리닝 사업  
\$250,000.00

**JIN CHUNG, REALTOR®**

**kw**  
KELLERWILLIAMS.

(857) 231 - 3096 [JINCHUNG@KW.COM](mailto:JINCHUNG@KW.CO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http://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6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3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교회: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Master Golf Professional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j.usgtf@gmail.com](mailto:sj.usgtf@gmail.com)

**857.600.6755**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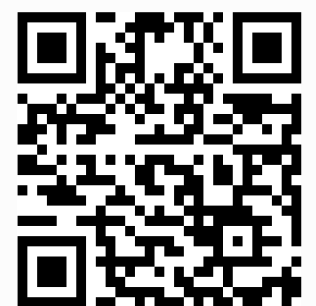


# 백신을 접종해

##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하세요

**무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으세요  
 신분증, 건강보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백신접종장소를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찾으세요  
[MASS.GOV/COVIDVACCINE](https://mass.gov/covidvaccine)



Asian American Civic Association



Eastern Bank

JOIN US FOR GOOD

보스톤 전망대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자루없는 도끼와 하늘을 떠 받칠 기둥 수허몰가부(誰許沒柯斧) 아작지천주(我斫支天柱)

원효대사는 신라 진평왕때 지금의 경상북도 경산의 압량주 밤골에서 육두품 집안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원효는 범명이고, 속성은 설, 아명은 서당, 또는 신당으로 불렸다. 그러나 출가한 이후에는 고선사와 분황사에서 수많은 불경을 저술해서 범명을 "분황"으로도 불렸다.

그의 어머니가 만삭의 몸으로 원효를 임신하고 밤나무 밑을 지나가다 갑자기 산기가 있어 집에 들어갈 틈이 없이 남편의 옷을 나무 가지에 걸고 해산했기 때문에 이 나무를 사라수(娑羅樹)라고 불렀다.

이는 석가세존이 사라숲에서 태어나고 보리수 아래에서 득도하였으며 사라수 아래에서 입적하였기 때문에 원효대사의 탄생을 이에 비유한 것이다. 지금도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의 한 언덕에는 신라 31대 신문왕 당시 원효가 지었다는 금당자리가 남아있어 그자리가 원효가 태어난 장소로 추정하고 있다.

원효는 이미 7살의 어린 나이에 산에 가기를 좋아해 조부가 따가운 햇볕과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초막을 지어 초계사(草係寺)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한다.

대사는 15세때 출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살던 집을 헌납해 절 이름을 초계사(初開寺)라 하였고 자신이 탄생했던 사라수 곁에 절을 지어 사라사라 불렀다. 대사는 나면서부터 총명하고 뛰어났는데 대각국사 의천 화상이 남긴 글에 의하면 지금의 전주에서 고구려 고승 보덕화상 문하에서 배웠으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해공대사에게 질문하였다고 한다.

원효대사는 화엄경소, 금강삼매경론 등 수많은 경전을 저술했는데 화엄경소는 10회에서 절필하여 그 이후에는 새로운 저서는 더 이상 없게 된다. 이는 원효대사가 저술하는 것 보다는 신라 민중 속에서 불교를 보급하는데 주력하였기 때문이었다.

## 《수허몰가부(誰許沒柯斧) 아작지천주(我斫支天柱)》

661년에 원효, 의상이 당성의 고분에서 해골물까지 마시고 의상대사를 당나라로 떠나 보내고 원효대사는 신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 즈음에 원효대사는 "수허 몰가부 아작지천주"라는 뜻모를 노래를 지어 부르며 아이들도 따라 부르며 하면서 마을을 돌아다녔다.

이 노래는 시경에 나오는 빈풍벌가(飗風伐柯)를 패러디한 것으로 그 뜻을 풀이하면 "누가 나에게 자루없는 도끼를 빌려주겠는가? 나는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찍으리라."라는 노래였다. 사라벌에 살고 있는 아무도 노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태종무열왕이 노래의 참뜻을 훤히 알고 있었다. 무열왕은 이어서 "이 스님은 필경 귀한 부인을 얻어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구나. 나라에 큰 현인이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자루없는 도끼는 과부 여인을 말하는 것이고, 떠받칠 기둥은 사내아이, 아들을 얻고 싶다는 말이다. 이후에 무열왕은 원효가 찍은 상대가 자신의 둘째딸 요석공주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요석공주는 삼국사기와 화랑세기에서 원효와 만나기 전에 화랑 김흠운에게 시집갔으나 659년 백제와의 조천성(지금의 옥천) 싸움에서 전사하여 일찍이 과부가 되어 두 딸과 함께 요석궁에서 살고 있었다. 그래서 무열왕은 요석공주를 원효와 짝지어줄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요석공주 역시 그를 좋아하는 눈치였다. 한번은 공주가 원효를 위해 승복과 모란을 선물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는 몇일이 지나 원효가 남산에서 내려와 요석궁 근처의 문천교를 지난다는 것을 궁인을 통해 듣고는 대사를 꼭 모셔올 것을 지시하였다. 요석궁과 문천교는 지척간에 있었다.

나졸들이 문천교 다리 밑에 숨어있다가 원효대사가 오는 것을 보고는 일제히 길을 막고 요석궁으로 갈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대사가 웃으며 못가겠다고 하자 나졸의 수장이 자신과 무술을 겨루어 대사가 지면 요석궁으로 가고, 이기면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제안을 하였다. 둘이 무술을 겨루었지만 일찌기 무예가 출중했던 대사를 이길 수 없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요석궁으로 모셔오라는 명령을 받은 나졸들은 일제히 대사에게 달려들었지만 결과는 매한가지였다. 땀뻘드는 나졸들을 들어 문천교 밑으로 떨어뜨리니 다리 밑에서 허우적거리는 나졸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마지막 나졸과 함께 원효대사가 문천교 밑으로 일부러 빠지니 나졸들이 기뻐하며 자연스럽게 요석궁으로 모시고 갔다. 젖은 옷을 말려 드린다는 구실을 삼아 요석궁에서 3일을 머물렀는데 이때 요석공주와 인연을 맺어 설총이 태어나게 된다.

원효대사는 요석공주와 동침한 관계로 이제는 과계승이 되었다. 스스로를 낮추어 야릇한 것 중에서도 가장 아래에 위치한 소성거사(小性居士)라 부르고 대중들에게 불교를 전하게 된다.

당시 신라는 불교국가였지만 왕과 귀족들만을 위한 국가로 일반 백성들은 불교를 믿고 싶어도 너무 어려워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원효대사는 어려운 불교 교리를 필요없고 다만 나무아미타불을 10번만 말하면 손쉽게 서방극락정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원효대사는 3일의 신혼 후에 만류하는 요석공주를 이별하고 본인의 고향 압량(지금의 경산) 반룡사를 향해 떠났다. 그 뒤를 이어 만삭이 된 요석공주가 남편을 보지 못하고 반룡사에서 멀지 않은 삼성산 유곡동의 한 민가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다. 바로 이 아이가 신라 10현 유학의 태두이며 이두를 집대성한 설총 그사람이었다. 흥유후는 고려 현종이 설총에게 추후에 기증한 시호로 "흥유후 실



원효대사가 주지로 있던 고선사 3층석탑, 국보38호



원효대사가 창건한 경산 반룡사



원효대사가 창건한 경산 반룡사



문천교에서 원효대사 물에 빠지다.



원효대사와 요석공주 시연을 이어주는 월정교

기"에는 원효대사의 아이를 가진 공주가 시댁 동내를 물어물어 찾아와 유곡에서 아이를 낳고 유천에서 아이를 키웠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 유곡, 유천 두 지명은 삼성산 근처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남산면의 동리 이름이다.

설총은 어린 시절을 압량(경산)에서 보냈는데, 태종무열왕은 요석공주와 손자 설총을 보고 싶으면 수시로 왕후와 함께 구룡산 고개를 넘어와 반룡사에서 치성을 드렸는데 왕이 넘었던 고개라 하여 왕제(王峴)고개라고 불렀다고 한다.

설총은 일찍부터 신라 사람들에게 괄목할 만한 업적을 많이 남겼는데 그중의 으뜸은 한자를 우리식으로 풀어쓰게 만든 이두를 집대성한 것이다.

어릴적부터 경전과 역사를 깨우쳤고 문장의 솜씨가 탁월하여 강수, 최치원과 더불어 신라 3대 문장가로 이름을 떨쳤는데 그의 유일한 작품 "화왕계"를 남기고 있다.

아버지 원효가 신라 불교에 한 획을 그었다면 신라 유교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사람은 설총이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671) 하락하는 주식시장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오미크론(Covid-19) 전염이 심해진다. 이자율이 상승한다. 물가도 점점 더 오른다. 등의 비관적인 소식은 주식시장을 더욱 하락장으로 몰고 간다.

신문과 방송 매체도 어김없이 “폭락(Plunge)”, “빠른하락(Tumble)”, “피바다(Bloodbath)” 등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투자자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 하락하는 나의 소중한 자산을 주시하면 불안한 마음을 떠나서 두려워지기 시작한다. 투자한 돈을 현금으로 바꿔야 하나 마음이 연일 갈팡질팡이다.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투자자는 그 이유와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알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인터넷도 열심히 찾아보고 신문과 방송 뉴스에 눈과 귀를 집중하지만 시원한 해답을 얻지 못한다. 주식시장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을 1970년부터 50년의 결과를 살펴보면 2년에 1번은 10% 하락(Correction), 4년에 1번은 20% 하락(Bear Market), 그리고 7년에 1번은 30% 폭락(Crash)을 경험

했기에 주식시장의 하락은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니다. 1973-1974년에는 48% 폭락 그리고 2000-2002년에는 50% 폭락이라는 놀라운 하락도 경험했다. 이처럼 주식시장은 하락과 폭락이 분명 일어났다는 것이다.

투자자는 주식시장 하락으로 불안한 마음과 시장을 예측하려는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큰 안목으로 주식시장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 주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실제적인 가치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기업 일부분을 소유하는 것이다. 기업은 경제의 기본이며, 경제는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미국은 블랙먼데이, 이라크 전쟁, 9/11, 자연재해, 금융위기, 유럽 화폐 위기, 무역전쟁, 등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 질병도 SARS, Swine Flu, Bird Flu, West Nile, MARS, Ebola, 등을 겪을 때마다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경험을 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극복하며 국민총생산량(GDP)이 꾸준히 상승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발전을 위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

문이다. 작년에 미국에서 상장된 회사 수가 980개이다.

코로나가 시작한 2020년 3월 말 이후 미국 전 국민의 순자산이 \$110 trillion에서 \$137 trillion으로 늘어났다. (참고로 \$1 trillion이란 \$1,000 billion이고 \$1 billion은 \$1,000 million을 말한다). 순자산이란 집, 주식, 채권, 자동차, 현금 모두에서 주택 용자, 신용카드, 학자금, 자동차 용자, 등 모든 빚을 제하고 남은 자산을 말한다.

경제는 기업의 수익과 성장을 반복하며 상승하지만, 주식시장은 수많은 투자자의 두려움과 욕심에 따라서 단기간에는 큰 폭으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특히 급격하게 하락하는 주식시장에서 느끼는 마음은 분명 유쾌한 기분이 아니다. 그러나 과거 10% 하락을 36번 중에서 22번은 하락한 상태로 머문 기간은 104일보다 적었다. 하락한 주식시장은 두렵지만 하락한 상태로 머문 기간은 매우 짧은 기간이라는 뜻이다.

미국 경제는 2차 대전 이후 한 달씩 통계

를 보았을 때 하락했던 달 수는 14%에 불과하고 86%는 매달 상승했다. 주식시장 하락이라는 투자 위험 없는 주식시장 수익률을 받을 수 없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2021년까지 지난 13년간 연평균 16.03%이다. 이것은 10만불 투자자가 거의 70만 불로 불어난 놀라운 수익률이다. 지난 90년의 오랜 주식시장 연평균도 10%이다. 수익률 10%란 투자 돈이 7.2년마다 2배로 불어나는 수익률이다. 미래의 주식시장 수익률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오랜 역사는 우리에게 기준치를 제시한다. 오랜 기간 주식투자 수익률은 분명 물가 상승보다는 높았다는 사실이다.

주식 하락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방송 매체에 집중하다 보면 무엇인가 결정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로 마음이 다급해진다. 그야말로 떨어지는 칼을 손으로 잡는 절박하고 위험한 결정을 할 수 있다. 하락하는 주식시장에선 모든 방송 매체를 잠시 멀리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재미있는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훨씬 유익할 것이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23세 풍월주(風月主) 군관(軍官公)(3)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화주(花主) 보량은 아름답고 아양을 잘 떠는 사신이 있었다. 그는 양도공의 폐인이자 낭두의 고위직에 있던 찰의였다. 양도는 자신이 낭두들의 처들과의 색사에 빠져 부인 보량이 아랫사람과 사통하는 것도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자 찰의는 낭정마저 전횡하면서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했다. 그래서 김군관이 부제로 있을 때부터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찰의를 풍월주가 되어서 검을 뽑아 죽이려고 했다. 결국 보량의 도움으로 찰의는 목숨은 건졌지만 낭정에서는 제외되었다. 그리고 화주 보량의 사신(私臣)이 아름답고 색사에 능하다는 그 소문이 당시 임금인 선덕여왕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 내용이 화랑세기에 전한다.

[군관공의 성품은 주색을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감히 그 사생활을 엿볼 수 없었다. 보량이 “군관은 진정으로 우리 부부의 신하이다” 했다. 선덕제(善德帝)가 일찍이 궁정의 연회에서 조용히 보량에게 일러 말하기를 “듣건대 너의 폐아(廢兒)가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 아름다움이 과연 어떠한가?” 했다.

보량이 대답하여 “신이 듣건대 천자는 신하의 내사를 묻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폐하가 굳이 물으신다면 신첩에게 한 명의 사신이 있으니 보여 드리겠습니다” 말했다. 다른 날 김군관을 데리고 보았다. 대개 선덕제의 뜻이 찰의에게 있었는데 군관을 보게 한 것이다. 제(帝)가 군관에게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가 아름답다고 하는데 무슨 재주가 있는가?” 물었다. 군관이 말하기를 “신의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지 않고 단지 마음속에 있습니다” 했다. 제(帝)가 “네 마음 속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는가?” 하자, 군관이 말하기를 “신은 보량 부처를 위하여 죽기를 원하고, 보량 부처는 폐하를 위하여 죽기를 원합니다. 소위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단지 이것 뿐입니다” 했다. 제(帝)가 그 착함을 칭찬하여 음식을 내리고 보량을 보며 말하기를 “네가 데리고 있는 한 아이가 나의 열 아이보다 낫다. 잘 기르기를 바란다” 했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량이 늘 군관을 진정으로 우리 부부의 신하이다(보량상위군관자성오부처지신아(寶良常謂軍官者誠吾夫妻之臣也))” 라며 신첩을 썼는데, 화랑세기에 쓰인 신첩은 조선시대에 쓰였거나 또는 현재 알고 있는 개념과는 상이하게 그 쓰임이 상당히

광범위했다. 임금에게만이 아니라 지위의 고하관계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쓰였음을 무수히 볼 수 있다. 화랑도의 조직 내부에서만 국한하더라도 부제 이하의 모든 화랑도들이 풍월주에게 대하여 칭신하였다. 그래서 화주인 보량도 부제 군관을 신첩으로 호칭했다. 신첩도 여러가지로 구분되어 기록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의 의미가 많이 다르기도 하고, 또한 같은 종류도 그 역할이 조금씩 달랐음도 볼 수 있다. 그 극명한 사례로 무수하게 등장하는 것이 ‘사신(私臣)’인데 그 역할의 용례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쉽지 않다. 때로는 몸종처럼 아주 가까이서 시중을 들어주거나, 때로는 허물없이 함께 지내면서 지문을 받기도 하며, 화주의 사신들은 색사가 포함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폐신(廢臣)’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총애하는 신하, 아첨하여 임금의 신임을 받는 신하’ 정도의 의미인데, 화랑세기에서는 사신과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으면서도 남색의 냄새를 질게 풍길 때도 있다(폐신보다 더 분명한 남색을 풍기는 용양신도 있었다). 그리고 ‘침신(枕臣)’도 등장한다. ‘잠자리를 보좌하는 아랫사람’이라는 의미인데 보좌의 내용이 상황에 따라 달랐던 사례가 흔했다. 김

양도의 외할머니 보명(양명의 어머니)은 지소태후와 침신(仇珍) 사이에서 태어났다. 구진이 지소태후의 침신이라고 하여 ‘내시공’의 남자가 연상되기도 하지만 그는 풍채가 건장한 장수였다. 구진은 장수왕 때부터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죽령 이북의 고구려 땅을 551년 공격할 때 참전한 신라의 9명의 장수 중 한 명이었다. 그 전투의 승리로 신라는 한반도 중부 지역의 10군을 차지하였다. 9명의 장수들의 면면을 보면 대개간(大開干) 구진(仇珍)을 비롯하여 각각 비태(比台), 잡찬(答訖知)와 비서(非西), 파진찬(伐津干)과 서력부(西力夫)와 노부(奴夫), 대아찬(大阿次)과 비차(比次)와 이찬(伊次)과 미진(未珍)과 당대의 결출한 무장들이었다. 이 전투는 나제동맹으로, 백제는 한강 하류를, 신라는 한강 상류를 치고 올라가며 공격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전쟁 승리 후 신라가 이 지역, 즉 한강의 상하류를 모두 차지하였기에 백제의 성왕이 노해서 결국 관산성 전투로 이어졌다(성왕은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 어느 멋진 가을날 민유선(노인회 고문)

편집자 주: 민유선 전 노인회장이 기고한 이 글은 지난해 11월 21일자로 보도 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편집의 부실로 일부 오타 및 부정확한 직함 기입 등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독자 여러분 과민 전 노인회장께 사과드립니다. 또한 새로 정정한 글을 재게해니 부디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리톤 김형규, 소프라노 배다해 등 유명 성악가들은 “10월 어느 멋진 날” 이라고 유럽의 봄노래를 번안하여 부르기도 하였으나, 저는 이 가을에 제가 겪은 어느 멋진 하루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워낙 사과를 좋아하는 저희 부부는 지난 가을 어느 날, 북부보스톤연합감리교회 어르신들의 모임인 “상록회”가 주관하는 사과 따기 행렬에 동참하였습니다.

날씨는 쾌청, 과일 향기 그윽한 과수원에서 각자 자기 몫의 사과를 따고 나니 어느새 점심시간, 준비해 온 김밥 한줄에도 정성이 가득한 점심을 먹던 중에 느닷없이 상록회 회장님께서 저희 부부를 불러 세웠습니다. “감사장”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동안 건강이 좋지 않아 집안에서만 지내다가 이제 겨우 외출이 가능해진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뜬금없이 무슨 감사장일까요?

더구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착실히 상록회를 발전시키시는 이기환 회장님과 초창기부터 20여년 이상 상록회에 헌신하신 권한섭 회장님, 그리고 노인회를 위하여 오래 전부터 익명의 후원자로 계시던 전기

운씨가 방문한 자리에서 필자가 감사장을 받는다는 것이 웬지 축스럽고 민망하였습니다만, 얼떨결에 “감사패”를 받아 들고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니 이런저런 일들이 새삼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여러해 전, 필자가 보스톤 한미 노인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을 당시에 지금과 달리 보스톤 노인회 회장은 보스톤 지역뿐 아니라 뉴잉글랜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 주의 행사에 참가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필자는 노인대학 건으로 어느날 북부 보스톤감리교회를 처음 방문한 후부터 비교적 자주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필자가 개인적으로 친밀감을 느끼거나 존경스러운 어른들을 만날 수 있었음은 저의 행운이었지요. 고령이심에도 불구하고 성경말씀이나 시구절을 줄줄이 외우시던 고(故) 신희숙 권사님은 물론, 90세가 넘은 최근까지도 건강한 자세로 성가대에 서시던 김명숙 권사님 역시 저의 롤모델이었습니다.

상록회 초대회장 서정섭 권사님을 비롯하여 최덕중 장로님, 박재영 장로님 등 역대 회장님들과 그 임원

들, 굳은 믿음으로 소박하게 살다가 신 김원엽 장로님, 평생 금융인답게 조용한 믿음을 실천하신 김만정 권사님, 여성인권을 존중해주시던 진정한 페미니스트 박기식 선생님, 뇌졸중의 불편함 속에서도 항상 명랑하셨던 조승진 권사님, 후한인심으로 유명하셨던 조순자 권사님과, 기타반주의 달인 주중옥 권사님 외에도 덕성 높은 여러 어른들의 선한 영향력을 제가 어찌 잊으리오.

그곳을 방문할 때마다 제가 받은 넘치는 사랑에 보여드린 겨자씨보다 작은 저의 성의가 오늘날 이렇게 크고 귀한 감사패로 되돌아오니 무엇이든지 서로 주고 받는 마음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가!

저와는 각별히 가까이 지내던 Dr. 김 그레이스나 장정문 회장님께서 투병 중이라는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었던 그날, 따뜻한 다과를 한아름 안고 과수원까지 찾아오신 전기운 선생은 필자가 모 군단의 후송병원에서 근무할 때 같은 병원에서 일했던 사이로서 미국에서 다시 만나 옛 기억을 공유할 수 있으니 더욱 반가웠던 날, 세상은 참으로 넓고도 좁은 것임을 실감한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온고지신(溫故知新) 옛 것(어른)을 소중히 여기고 배워 새로운 지식이나 도리를 습득하고 익힌다는 것을 “온고지신”이라고 하던가.

이승식, 박경숙 권사님 두분 부모의 성품을 닮은 이정수 집사님의 충실한 운전 봉사뿐 아니라 상록회를 위하여 늘 협조를 아끼지 않는 젊은 형제 자매님들은 미래를 밝힐 주인공들이라는 생각이 더욱 분명해진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지구의 일기 변화화 잦은 자연재해, 코로나 19 전염병이 창궐하는 중에도 철따라 아름다운 꽃으로 열매로 찾아오는 자연의 질서가 고맙다, 갈라, 하니크리스 등 잘 익은 과일이나 무밀 풀숲에 떨어져 뒹구는 붉은 사

과들을 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어느 한편에서는 기아로 허덕이는 사람도 많았는데, 지금 우리가 누리는 과분한 풍요가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두터운 유리벽의 보수 성향이 팽배하던 지역 분위기에서도 최초의 여성 회장인 필자를 지지해 줬을 물론 워싱턴 벚꽃놀이 등 다양한 행사에 어른들을 모시고 다니던 조영태 한인회장단의 각별했던 경로사상이 새삼스러운데, 서영애 한인회장의 너그러운 후원이 그날의 사과밭에서도 유난히 빛나는 날 - 2021년 10월 6일 - 필자에게는 여러 면으로 잊지 못할 가을의 감사하고도 멋진 하루였습니다.

2월 6일 - 2월 12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b>쥐띠   땅을 파다가 금을 얻는다</b></p> <p>● 운수: 외유내강의 모습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인심도 얻고 귀인의 협조도 얻게 됩니다. ● 금전: 땅을 파다가 금을 얻는 것과 같이 뜻밖의 상황에서 금전운이 따라옵니다. 자신이 바라는 만큼의 소득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 애정: 삶의 즐거움이나 가치는 자신이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상대 때문에 흔들리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8, 12일 길일, 7, 10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b>소띠   냉철한 눈으로</b></p> <p>● 운수: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냉철한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분명하게 생각해 보세요. ● 금전: 꼭 들어올 돈은 미루어지고 급하게 쓸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울 때이니 지출에 신중하세요. ● 애정: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터질 것 같은 상태입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도록 하세요. 97, 85, 73, 61, 49, 37년생은 9, 12일 길일, 8, 11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b>범띠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b></p> <p>● 운수: 평소에 계획한 일을 구체화하여 추진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뒷사람에게 칭찬과 찬사를 받게 되고 승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 금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격이니 수입은 늘고 지출은 적어집니다. ● 애정: 혼자 지내오던 사람은 이성형의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아가자기한 사랑을 속삭일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7, 10일 길일, 9, 12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b>토끼띠   확 트이고 드넓은 광야가</b></p> <p>● 운수: 힘들게 산을 넘고 이제는 확 트이고 드넓은 광야를 마주하게 됩니다. 근심·걱정을 모두 사라지게 해주는 일이 있겠습니다. ● 금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원하던 돈도 들어오면서 숨통이 트입니다. ● 애정: 반값고 기쁜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미혼남녀는 일생을 같이할 배필과의 인연이 이어지는 때이니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8, 11일 길일, 10, 12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b>용띠   단호히 결정하여</b></p> <p>● 운수: 원하는 일을 더는 미루지 말고 단호히 결정하여 시작하도록 하세요. 투자하거나 변화나 변동을 시도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 금전: 기다리는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은 미루고 지체할수록 손해가 될 것입니다. ● 애정: 이성 간에 있어서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이로부터 프러포즈도 받게 됩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9, 12일 길일, 6, 11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b>말띠   이정표를 찾도록</b></p> <p>● 운수: 살아가는 데에 길이 많지만 수많은 길 중에서 내가 걸어갈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잘 파악해서 이정표를 찾도록 하세요. ● 금전: 지난날에 뿌렸던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니 노력에 대한 결과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것을 구하면 큰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 애정: 사랑이란 진정한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10, 11일 길일, 6, 12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b>말띠   여유 있는 마음을</b></p> <p>● 운수: 하고자 하는 의욕과 활동의 영역을 넓혀보려는 생각은 있지만, 몸과 여건이 따라주지 못해서 갈등을 겪게 되는 상태입니다. ● 금전: 가슴을 활짝 열고 여유 있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웅충하면 그만큼의 경제적 손실이 따르게 됩니다. ● 애정: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집니다. 원가 결심까지 하기에는 자기 자신만이 느끼는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9, 11일 길일, 7, 10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b>양띠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혀야</b></p> <p>● 운수: 불쾌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언행에 특별히 신경 쓰면서 대인관계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거래에 있어서 자기 뜻을 분명히 밝혀야 손해가 없습니다. 금전 문제로 부부가 옥신각신하기 쉬우니 내가 먼저 참도록 하세요. ● 애정: 새것을 취하기 위해서 옛것을 가버릴 여기도 버리지 않도록 하세요. 평도 매도 다 잃게 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7, 10일 길일, 6, 11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b>원숭이띠   현실적인 판단이</b></p> <p>● 운수: 능력 있는 사람에게 협조를 구해야 큰일을 성취하게 됩니다. 단, 다른 사람의 말보다는 현실을 고려한 판단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 금전: 여러 면에서 좋아지니 금전운이 갈라지고 볼 수 있습니다. 손조름이 진행되고 수입이 나아집니다. ● 애정: 애정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군요. 인간관계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8, 12일 길일, 6, 9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b>닭띠   인덕이 따라주어</b></p> <p>● 운수: 주위로부터 인정받고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인덕이 따라줄 것입니다. 실업자는 새 직장을 얻게 됩니다. ● 금전: 나갔던 돈이나 들어와야 하는 돈이 들어오니 주머니가 두둑해질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도 찾게 됩니다. ● 애정: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 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기회를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세요. 93, 81, 69, 57, 45, 33년생은 8, 9일 길일, 7, 10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b>개띠   상대의 의사를 존중해야</b></p> <p>● 운수: 상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남보다 앞서기보다는 뒤를 따르는 형식을 취하면 무난하게 넘어갈 것입니다. ● 금전: 여느 때보다도 씀씀이가 늘어납니다. 좀 더 알뜰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 애정: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말이란 참으로 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의 화를 녹이고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을 해보세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7, 10일 길일, 8, 11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b>돼지띠   깊은 관심이 필요한</b></p> <p>● 운수: 예상치 않은 일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고 주위를 잘 살피면서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 금전: 항상 분수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무리한 투자나 새로운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상대에 대한 깊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서로서로 바로 알지 못하면 상대를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7, 11일 길일, 9, 12일 주의.</p>

##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12/17  
 셀폰 스토어 풀타임, 파트타임 북키퍼 및 매니저 구함  
 hongkyonghui@hotmail.com

10/29  
 렉싱턴에 있는 치과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이 없으신분은 트레이닝 해드립니다.  
 T. 781-859-9218

##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 생활서비스

광고 문의 617-254-4654

##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 블랙핑크 '뚜두뚜두' MV 유튜브 18억뷰 돌파... "K팝 그룹 최초"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그룹 블랙핑크가 지난 2018년 발표한 히트곡 '뚜두뚜두'(DDU-DU DDU-DU) 뮤직비디오의 조회 수가 18억 회를 넘었다.

1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뚜두뚜두' 뮤직비디오는 이날 오후 5시 2분께 유튜브에서 조회수 18억 회를 돌파했다.

2018년 6월 15일 영상이 공개된 지 약 3년 7개월 만이다.

소속사 측은 이번 기록에 대해 "K팝 그룹의 뮤직비디오로는 최초이자 최고 조회수"라며 "현 추세라면 연내 20억 뷰 달성도 불가능하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블랙핑크의 첫 미니앨범 '스퀘어업'(SQUARE UP)의 타이틀곡인 '뚜두뚜두'는 중독성 강한 후렴구와 양손으로 춤을 췄다는 안무가 특

징이다. 이 곡은 발매 직후 미국 빌보드의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 55위로 진입했으며, 2018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K팝 뮤직비디오 1위에 오르는 등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았다.

지난해 2월에는 K팝 남녀 그룹을 모두 통틀어서 처음으로 유튜브 조회수 15억 회를 넘어서기도 했다.

현재까지 블랙핑크가 발표한 영상 가운데 유튜브에서 역대 조회 수를 기록한 영상은 총 32편으로, 그간 공개된 동영상의 누적 조회 수는 223억 회를 넘어섰다.

현재 블랙핑크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7천180만명이 상으로, 전 세계 아티스트 가운데 가장 많다.

yes@yna.co.kr



# 웹툰 '머니게임' 드라마로 제작... 류준열 · 아이유 · 박정민 출연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네이버 인기웹툰 '머니게임'이 드라마로 제작된다.

네이버웹툰은 배진수 작가의 웹툰 '머니게임'과 '파이게임'을 합쳐 새로 각색한 8부작 드라마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아직 드라마가 서비스될 OTT 플랫폼은 확정되지 않았

다. 드라마는 사회적 인프라가 단절된 공간 속 사망자가 나오면 게임이 종료되는 극한의 설정 속에서 참가자 8인이 협력과 반목을 거듭하는 이야기를 다룬다.

류준열과 아이유(본명 이지은), 박정민, 박해준과 배성우가 출연을 확정했으며, 상반기 안으로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심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보스톤공과대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가족을 지킵니다

#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828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10)

남편을 떠나보낸 지 10개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편은 1963년생, 만 58살(한국나이 59살)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보다 한살 아래입니다. 너무도 그립고 보고 싶고 '남편의 수다'가 너무도 그립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며 슬픔과 보고픔을 절제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아시니 저를 붙잡아 일으켜 주세요, 쓰러지지 않도록, 이 아픔과 슬픔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돌보아 주세요. 저를 단련하신 후에는 저를 순금 같이 만들어 쓰소서.

매일 남편의 묘지에 다녀옵니다. 집에서 걸어서 45분이면 찾을 수 있는 곳이라 마음 편안히 다녀올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남편을 찾아가면 늘 감사하다는 얘기만 들려주다 옵니다. 착한 세 아이들을 내 곁에 두고 떠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고, 각자의 길에서 성실히 그리고 열심히 '자리매김'하면서 살아서 고맙다고, 그렇게 든든한 세 아이와 며느리를 두고 가서 또 고맙다고, 남편에게 인사를 하고 옵니다.

남편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그리고 멀리 타주로 떠났던 지인들도 보스턴에 다니러 왔다가 남편 묘지를 찾아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과 지인들이 남편 묘지에 찾아왔던 발자국을 보면,

"어떻게 죽어서까지 나를 감동시키느냐고 또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옵니다. 다른 이들이 내게 들려주는 위로의 말이 그렇듯이...

"남편은 떠났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겠지 않겠느냐고" 들려주는 이 말이 참으로 싫었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남편은 1970년, 만 6살에 미국에 이민을 와 51년을 미국에서 살다가, 지난 2021년 3월 말에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10여년 전 지병은 있었지만, 비즈니스를 하며 사

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35년(1986년) 전 만나 2년을 연애하고 결혼 32주년을 보냈으니 너무도 편안하고 친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 아이에게 참 좋은 아빠였습니다. 아내인 제게는 친구 같은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월 중순 면역성이 약한 가운데,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결국 병원 중환자실에서 2개월을 치료하다가 2021년 3월 28일에 하나님의 부름심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모든 것이 제 이름으로 옮겨지고, 이제는 현실임을 깨닫습니다. 남편이 워낙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똑똑한 사람인지라, 아내인 저를 혼자 남겨두고 떠날 것을 미리 염려하고 알았던지 경제적인 부분은 잘 관리해놓고 가서 또 감사했습니다. 세 아이들에게 엄마가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고, 세 아이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될 만큼 남편이 준비해놓고 갔습니다.

이처럼, 남편이 곁에 없어 보고 싶고 서운하지만, 제 곁에 든든한 세 아이와 며느

리가 있어 감사합니다. 남편의 빈 자리와 처음 맞는 생일과 명절(부활절, 팽스키빙, 크리스마스 등)날에, 아빠와 남편이 없음을 확인하는 처음의 자리가 참으로 버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주저앉지 않도록 붙들고 계셨습니다.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도 담대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고, 사진을 담고, 걷기와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늘 기도하면서, 걸으면서, 글을 쓰면서 많이 치유를 얻었습니다.

주님, 이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저를 무엇으로 쓰시려고, 이토록 도망치려 하면 다시 꼭 잡고 계시니 궁금합니다. 어느 길로 저를 인도하시려고, 무슨 뜻이 계획이 있으시길래 남편을 이토록 일찍 데려가셨나요? 말씀 해주소서! 주님, 이제는 듣겠나이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겠나이다. 주님, 오늘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길 위에서 늘 함께 동행해주실 당신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담객설閑談客說: 바람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련하다.

꽃잎 끝에 달려 있는 작은 이슬 방울들. 빗줄기 이들을 찾아와서, 음~ 어디로 데려갈까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네가 알고 있나. 무엇이 이 숲속에서 음~ 이들을 데려 갈까.. (아름다운 것들, 양희은 노래)

미국 북동부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다. 여름이면 카리브해 근방에서 비바람이 올라온다. 무섭게 북진하는데, 이 비바람 역시 일기에 보를 볼적엔 가슴 떨려온다. 한편 겨울이면 북서풍이 부는데, 캐나

다에서 발달한 게 남동쪽을 향해 돌진해 온다.

한국 역시 계절마다 계절풍이 있었다. 봄이면 섯바람이요, 여름엔 맞바람이라 했다. 한편 가을엔 하니바람이며 겨울엔 삭풍이다. 삭풍이란 말은 어렵다만 북쪽바람이라는 뜻이다.

바람중에 섯바람과 하니바람이란 말은 예쁘다. 바람이 예쁘거나 미울수야 있겠나 싶다. 하지만 섯바람이나 하니바람은 미풍(微風)이 아닐까 한다. 아니면 실바람이나 산들바람이라 해야 할까.

곧 봄이다. 한국에선 봄바람이 불텐데, 섯바람과 더불어 황사가 시작될 게다. 중국에서 불어 오는 고약한 바람이다. 안불거나 아예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디 섯바람뿐이라. 한국에선 선거바람이 분다. 아니 선거폭풍이나 태풍이 될수도 있겠다. 부디 모든 후보들 바람을 일으키시라. 그러나 된서리는 맞지 않기로 바람을 바람이다.

참, 바람과 바담과 바람이 발음하기엔 비슷하기도 하다. 바담은 혀 짧은 소리인데 바람이다. 바람이나 바담이나 바람이나, 글썬.

강풍과 같이한 지난 폭설에 가내 두루 안녕하신지. 안부만 묻는다. 엄청나게 쌓인 눈을 바람이 데려갈 것인가.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마태 14:32)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오래전 영화 제목이다. 제목은 길다만 길게 느껴지지 않는다. 많이 들어 귀에 익었기 때문인가. 하긴 바람은 영화나 문학작품 제목에 자주 들어간다. 눈도 그러하고 비 역시 그

러하며, 안개도 있다. 시인묵객들 뿐만 아니라 많은 예술작품에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하다.

오랜 가수 양희은은 노래했는데, 아름다운 것들 이다. 귀에 익은 몇절만 같이 듣는다. 가사 역시 아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 바이러스 같은 가짜뉴스, 예방은 팩트체크 백신입니다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는 바이러스입니다.

비판적 사고 없이 뉴스를 무작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행태가 가짜뉴스를 확산시킵니다.

뉴스가 진짜인지 의심하고, 출처를 확인하고, 다른 기사와 비교하는

팩트체크 습관을 기르는 것이 가짜뉴스라는 바이러스로부터 모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라는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 모두가 팩트체크라는 백신으로 허위정보를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만성폐쇄성 폐질환 (COPD)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암, 심뇌혈관 질환보다 무서운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호흡기내과 오흥근과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 고자 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기류제한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현상)을 특징으로 하는 폐질환이다. 흡연, 직업적 노출, 실내 오염, 감염 등에 의한 기도와 ‘폐실질’ 이상에 의해 발생하며 예방과 치료 가능성이 있다.

‘COPD’ 는 매우 흔한 질환으로 기류제한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기류제한은 소기도 질환과 폐기종이라고 불리는 ‘폐실질’ 파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긴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COPD’ 유병률은 12.2%이며 남자 15.7%, 여자 9.9%로 남성에게 더 빈번히 발병했고, 연령별로는 50세 이하 5.3%, 50~59세 10.2%, 60세 이상 21.4%로 연령이 증가할수

록 높았다. 국내 유병률도 2019년 10.8%로 조사되었는데, 40~50대 11.8%, 60대 19.1%, 70세 이상 27.3%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은 증가했다. 특히 2019년 남자 유병률(16.3%)은 여자(5.9%)에 비해 2.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COPD’ 발병 시기는 개인차가 있으나 대부분 40~50대 이후다. 발병은 흡연 후 10년 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국내의 경우 상대적으로 장기간 흡연을 해 온 중년층 남성 발병률이 높다.

한편, ‘COPD’ 치료율은 84.7%로 고혈압(61.7%), 당뇨병(60.8%), 고콜레스테롤혈증(53.1%)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선제적 예방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

증상은 호흡곤란과 기침, 가래, 천식과 같이 쌉쌉 소리가 나거나 흉부 압박감 등이 있다. ‘COPD’ 의 가장 흔한 원인은 흡연이며 유독물질, 공해, 미세먼지 등이기도는 물론 폐포에 만성 염증을 만들어 폐기능을 떨어뜨리는 것도 발병 요인이 될 수 있다. 장기간 흡연을 하면 폐세포 손상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해 폐기종이 발생되어 결국 ‘COPD’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치료는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기관지 확

장제를 사용하며, 효과 및 부작용을 고려할 때, 흡입약제를 우선 추천하며 한번 손상된 폐는 다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폐를 더 손상되지 않게 금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금연은 ‘COPD’ 예방과 질환 진행 속도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우리 몸은 20대까지 계속 성장을 한다. 따라서 사춘기부터 흡연을 하면 ‘만성폐쇄성 폐질환’ 의 조기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금연과 함께 가벼운 호흡기 감염이라고 해도 걸렸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선제적인 치료를 해야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호흡기 감염은 COPD악화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일부 환자에서 항생제 치료 시 항생제 내성으로 항생제 치료를 피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때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COPD’ 가 악화할 수 있어서 전문의와 상담 후 적절한 처방이 필요하다.

경증 ‘COPD’ 는 활동 중 호흡곤란이 발생하나 금연과 초기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중증 ‘COPD’ 로 진행되면 비활동 시에도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 기계에 의존하는 삶을 살 수도 있으며 호흡곤란으로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근력 약화, 체중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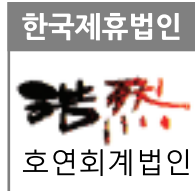
소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런 결과로 사회적 고립, 우울증 같은 정서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호흡재활치료가 도움이 되는데, 호흡곤란으로 인한 운동능력 저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루 30분, 주 3회 이상 걷기 등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다.

중증도 이상 ‘COPD’ 환자는 걷기 운동을 할 때 호흡곤란으로 오래 못 걷게 되는데, 이럴 때는 숨이 찰 정도까지만 걷기 운동을 하고 호흡이 호전된 후 다시 걷기 운동을 반복하다 보면 폐활량이 좋아지고 걷는 시간이 길어져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 휴람 - 성형외과

## 해외 동포 특별가 성형 패키지



### 성형 패키지 특별가 이벤트

- 눈 꺼풀 + 눈 밑 처짐 ..... 360 만원      콧대 + 코끝 ..... 350 만원
- 얼굴 처짐(목 처짐 포함) ..... 700 만원      지방흡입(복부) .... 500 만원
- 가슴 (보형물에 따라 가격 상이) ..... 600~1,000 만원

\* 상담 결과에 따라 수술 방법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이벤트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내용에 따라 휴람에서는 숙박 혜택 및 추가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무료전화(Call for Free)  
☎ 1-844-DO HURAM (1-844-364-8726)  
☎ 010-3469-4040 / ID : huramkorea  
✉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화로 변경)

\*전상품 1년 약정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sup>99</sup>**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YOUTUBE

**\$34<sup>99</sup>**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영화/성인, YOUTUBE

**\$39<sup>99</sup>**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 휴람 척추관절

나이가 들면서 오는 척추관절 퇴행성 질환...통증을 참고 계시나요?  
어떻게 사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치있는 생활을 위하여...하루 빨리 검사해보세요!!!



지금 상담을 통해 필요한 검사로 빠른 진단과 치료를 진행해보세요.  
휴람은 국내수가로 부담없는 비용에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 관절 질환

퇴행성관절염, 인대파열, 연골손상, 오십견,  
회전근개손상,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등등

=> 세포치료, 체외충격파, 관절내시경, 발목골절술, 힌다리고정술, 로봇인공관절등등

### 척추 질환

디스크, 협착증, 측만증, 거북목증후군, 골절등등

=> 미세현미경디스크절제술, 경피적 척추성형술, 척추유합술, 신경성형술등등

\*\*\* 정확한 상담을 위해 기존에 촬영하신 X-RAY, MRI 사진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 상기 치료는 병원에 따라 치료항목에 따른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사랑플러스병원(강동구 굽은다리역), 연세사랑병원(서초구 사당역),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이메일 : haram@ha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HOME RENOVATION  
**NAMU**

**나무**

- 국제기능올림픽 목재분야금메달리스트
- 대통령 훈장 수훈
- 15년 이상의 경력



### WHY NAMU



정직하고  
디테일한 견적



고객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진행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계약 기한 내 완공

### SERVICE

- ☑ 하우스 레노베이션
- ☑ 커스텀 캐비닛, 데스크
- ☑ 원목 테이블, 가구

견적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무료  
견적  
상담

🌐 [www.namuma.com](http://www.namuma.com)  
 ✉ [info@namuma.com](mailto:info@namuma.com)  
 ☎ 617-775-4771  
 📍 58 Pulaski st, Peabody, MA 01960  
 📷 @namu\_finewood

INSTAGRAM



HAPPY NEW YEAR

# 근하신년

2022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스톤 코리아는 새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더욱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 더욱 쉽고 편하게 보스톤코리아를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 더욱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하겠습니다.

HAPPY NEW YEAR